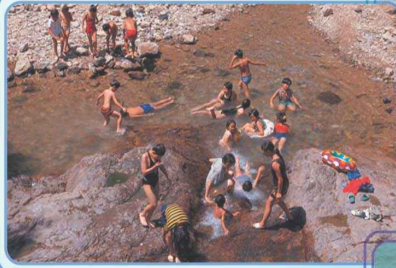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60000-000086-01

물놀이 안전 매뉴얼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안전관리 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1.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머 리 말

최근 지구 온난화, 환경파괴 등 기상이변과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의 다양화와 함께 대규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레저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단순한 물놀이에서 벗어나 수상스키, 래프팅 등 그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물놀이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1년동안 시행한 결과 발생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보완하여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준비된 훈련이 필요하며, 안전은
무한한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희망이 있는 블루오션의 영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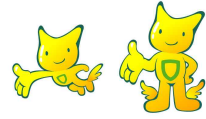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기관에서는
이번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일조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정부의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4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박낙조**



「물놀이 안전 매뉴얼」 주요내용

P I ~PⅢ까지는 이 매뉴얼의 주요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 ☞ 일선의 물놀이 관련 업무 담당자와 물놀이 현장에서 근무할 안전요원이 지켜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최소한 이 내용은 숙지하고 현장 근무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 매뉴얼」 주요내용

I 예방 단계

- ① 물놀이 지역(시설) 중점관리
 - 물놀이 지역(시설) 사전 조사 및 지정, 안전조치
 - 물놀이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 ②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 인명구조장비 적정 비치 및 안전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 ※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③ 물놀이 안전 매뉴얼 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수립·운영
 - 각 기관별 해야 할 책임 및 역할 규정

| 기 관 명 | 책임 및 역할 | 비 고 |
|---------|--|-----|
| 소방방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물놀이 안전 매뉴얼 개정 및 보급 ·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등 설정 · 물놀이 안전관리체제 구축 · 긴급상황 대비 재난상황실 운영 |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 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요원 등 모집 ·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관리 | |
| 교육과학기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수칙 등 교육 실시 | |
| 지 자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약지역 사전 조사·지정 · 물놀이 지역(시설)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 사고 예방 조치 · 물놀이 안전요원 모집 | |

Ⅱ 대비 단계

- 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설정 운영
 - 물놀이 안전대책기간(6월~8월) 설정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순찰·계도
- ②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태세 확립
 - 물놀이 사각지역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강화
 - 물놀이 위험구역에 각종 위험표지판, 안전수칙 정비
- ③ 물놀이 지역(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 성수기에 물놀이 지역(시설)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 ④ 기관별 책임 및 역할 규정

| 기 관 명 | 책임 및 역할 | 비 고 |
|-------|---|-----|
| 소방방재청 | · 물놀이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물놀이 취약시기에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 |
| 해양경찰청 | · 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 · 해수면 물놀이 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사전 준비 · 피서지내 질서유지 및 방법·치안 활동 | |
| 소방관서 | · 내수면 등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활동 철저 · 물놀이 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사전 준비 | |
| 지 자 체 | ·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실태 점검·정비 · 물놀이 지역(시설) 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관리강화 · 취약시기별 집중적 안전계도 방송 및 순찰·홍보 활동 | |

Ⅲ 대응 단계

- ①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에 따른 조치
 -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사항을 홍보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피 조치
- ②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조치
 - 현장상황 확인 및 조치를 위해 관계공무원 즉시 현장 출동 조치
 - 사고 발생시 시·군·구 물놀이 안전관리부서,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및 인적재난과에 통보
 - 보고 및 전파체계 수립
- ③ 기관별 책임 및 역할 규정

| 기 관 명 | 책임 및 역할 | 비 고 |
|-----------|---|-----|
| 소 방 방 재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예보 발령 및 전파 ·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시 비상체제기간 설정·운영 ·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강화 | |
| 해 양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지도·점검 · 물놀이 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관리 및 통보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정보 전파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등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관리 및 보고 ·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 |
| 지 자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 · 물놀이 장소(시설) 안전요원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 | |

《참고》

☞ 물놀이 안전관리자의 역할

물놀이 안전관리자의 역할

물놀이 안전관리자의 역할

- 물놀이 지역(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 물놀이 위험구역, 취락구역,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운영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락구역 순찰·계도
- 물놀이 사각지역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 및 안전관리 강화
- 물놀이 취락지역에 각종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 비상연락망 정비
- 물놀이 취락지역에 구명환, 구명로프 등 인명구조장비 확보·비치
- 성수기에 물놀이 지역(시설)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조로 역할 분담 수행
- 물놀이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각 유관기관에 「물놀이 안전 매뉴얼」 보급
- 물놀이 안전 예보의 발령 및 전파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 입력 조치
- 각 유관기관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 수집 및 대책 마련, 관계기관 요청시 정보 제공

☞ 물놀이 안전관리기관 ☜

- ①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 ② 시·도 및 시·군·구

물놀이 현장 근무자의 역할

-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
- 앰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 안전에 유의토록 홍보 및 계도
- 인명구조함이 없는 물놀이 장소에는 순찰자가 구명장비를 휴대하고 순찰
- 물놀이 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물놀이 취락지역 안전관리 상태 중점 점검
- 물놀이 취락지역의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 등 정비 상태 점검
- 해당 지역의 구조기관 비상연락망 숙지
- 물놀이 장소의 상황을 현장 지휘소 또는 시·군·구 재난종합상황실에 수시로 보고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조치
 - 119 구급대 신고 및 구조요원에게 알림
 - 현장상황 조치를 위해 관계공무원 즉시 현장 출동 조치
 - 물놀이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 음주수영 등에 대한 통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①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해수면122)로 신속히 신고한다.
- ②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③ 구조시에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한다.
- ④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호흡이 곤란하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목 차

| | |
|-------------------------------------|--------------|
| I . 물놀이 안전관리 개요 | 1 |
| 1.1 매뉴얼 개발 배경 | 3 |
| 1.2 매뉴얼 적용 대상 | 4 |
| 1.3 용어 정의 | 4 |
| 1.4 매뉴얼 관련 법규 | 6 |
| 1.5 매뉴얼 운영 방안 | 6 |
| II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 9 |
| 2.1 물놀이 안전사고의 특성 및 발생현황 | 11 |
| 2.1.1 물놀이 피서객의 심리적 특성 | 11 |
| 2.1.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06~'07년) | 13 |
| 2.1.3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책 | 14 |
| 2.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 22 |
| 2.2.1 물놀이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 22 |
| 2.2.2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의 운영 | 23 |
| 2.2.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구역 지정 · 운영 | 33 |
| 2.2.4 물놀이 취약구역 운영 | 38 |
| 2.2.5 물놀이 안전사고 비상체제 운영 | 41 |
| 2.2.6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 45 |
| 2.2.7 대국민 물놀이 안전교육 및 홍보 | 48 |

| | |
|--------------------------------------|----|
| 2.3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대책 | 51 |
| 2.3.1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51 |
| 2.3.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53 |

Ⅲ. 물놀이 안전관리 세부요령 55

| | |
|------------------------------|----|
| 3.1 시설별 안전관리 요령 | 57 |
| 3.1.1 해수욕장 | 57 |
| 3.1.2 하천(강) | 63 |
| 3.1.3 저수지 | 67 |
| 3.1.4 산간계곡 | 71 |
| 3.1.5 갯벌 | 74 |
| 3.1.6 유원지 | 77 |
| 3.1.7 수영장 | 80 |
| 3.1.8 수상레저기구 | 82 |
| 3.2 물놀이 안전 행동요령 | 86 |
| 3.2.1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 86 |
| 3.2.2 성인 물놀이 안전수칙 | 86 |
| 3.2.3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 88 |
| 3.2.4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구급법 | 93 |
| 3.2.5 응급구호법 | 96 |
| 3.2.6 구명동의 착용법 | 99 |

부 록

| | |
|--|-----|
| 【부록1】 물놀이(갯벌체험) 관련 법규 | 103 |
| 【부록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 106 |
| 【부록3】 피서객의 심리적 특성 | 108 |
| 【부록4】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 110 |
| 【부록5】 “갯벌체험 이렇게 합시다” | 116 |
| 【부록6】 수상 레포츠 안전수칙 | 118 |
| 【부록7】 DMB폰을 이용한 소방방재청 주요시책광고 계획 | 122 |
| 【부록8】 DMB폰을 이용한 TV화면 자막내용 | 123 |
| 【부록9】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표출 내용 | 124 |
| 【부록10】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지(예시) | 125 |
| 【부록11】 반상회보지 홍보문 게재 | 126 |
| 【부록12】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판례 | 130 |

별 첨

| | |
|------------------------------------|-----|
| 【별첨1】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 경고표지판(안) | 155 |
| 【별첨2】 위험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 160 |
| 【별첨3】 「Safety Line」 띠 제작(안) | 161 |
| 【별첨4】 시설물별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162 |



물놀이 안전관리 개요

I. 물놀이 안전관리 개요

1.1 매뉴얼 개발 배경

-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가족단위의 레저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과거 단순한 물놀이에서 벗어나 수상스키, 래프팅, 윈드서핑 등 복잡·다양해지면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 특히 여름철 방학한 학생과 휴가를 맞은 직장인들이 바닷가, 하천, 산간계곡, 유원지 등 물놀이 장소와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관계로 피서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책자나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의 안전관리 지침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물놀이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물놀이 안전 매뉴얼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일본, 미국 등 물놀이 안전 선진국의 안내서 등을 참조하여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1년동안 시행한 결과,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여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다.
- 본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이 연동하여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매뉴얼 제작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 이 매뉴얼은 피서객들이 안전한 물놀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물놀이 안전관리 및 이와 관련되는 자에게 시설 안전관리의 기본안내서로 활용코자 한다.

1.2 매뉴얼 적용 대상

- 본 물놀이 안전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조법», 「갯벌체험활동 등에 관한 관리 지침», 「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 등에서 규정한 장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물놀이 시설(지역)과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장소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여름철 특정시기(6월~8월)에 적용하며, 기후변화에 따라 그 전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하천, 계곡 등 수위 변동이 심한 경우, 기상특보시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수위가 평수위보다 높을 때에는 실내수영장을 제외한 전 물놀이 시설(지역)에서 물놀이를 금지한다.
-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라 함은,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나 물놀이 안전도모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편의상 「물놀이 안전 관리·감독기관»,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기관», 「물놀이 안전관리 책임기관 또는 책임자», 「교육 및 홍보 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는 물놀이 중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원칙으로 하되, 본 매뉴얼은 6~8월중의 물놀이 시설(지역) 및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3 용어 정의

- “물놀이 안전사고” 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 등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저수지, 계곡, 해수욕장 및 갯벌체험장 등의 행락지에서 물놀이중 사상자 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물놀이 안전선, 물놀이 위험구역 등의 용어에 대하여는 표1.1과 같다.

표 1.1 용어 정의

| 구 분 | 정 의 |
|--------------------|--|
| 물놀이 시설(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하천, 저수지, 유원지 및 갯벌 등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 |
| 물놀이 안전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사사고, 조난사고, 안전부주의 사고, 시설안전사고 등 여름철 물놀이 시설 등에서 물놀이 중에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물놀이 안전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장소 중 안전을 위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와 그렇지 않은 구역을 구분하여 출입을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한 선 ※ 재난안전선을 활용, 필요에 따라 부표, 로프 등 활용 가능 |
| 물놀이 위험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급류나 수심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역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설의 사용금지 및 입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지역) - 물놀이 금지 및 피서객 접근 금지 구역 표지판 게시 등, 물놀이 안전선으로 구역경계를 설정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지역) 등 |
| 물놀이 취약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인 주변여건 변화에 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판단하에 능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주변여건 상황에 맞춰 긴급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지역) - 유동적 위험요인 예측 가능한 취약구역 : 예상가능 취약구역 - 유동적 위험요인 예측 불가한 취약구역 : 예상불가 취약구역 |
| 물놀이 완충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구역과 위험구역 사이에 있는 지역 ※ 완충구역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됨 |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비상체제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철 등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기간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관리를 수행하는 기간 |
| 물놀이 안전사고 예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예방요령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령하는 주의보 및 경보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 |

1.4 매뉴얼 관련 법규

표 1.2 물놀이 안전 매뉴얼 관련 법규

| 법 규 명 | 조 항 | 비 고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등) | |
| 수난구호법 | 법 제6조(수난구호업무의 관할) | 「부록1」참조 |
| 갯벌체험활동 등에 관 한 관리 지침 | 지침 제2조(정의) 제5조(갯벌체험장의 지정) | 「부록1」참조 |
|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의 지정·고시 및 관리 주체 - 해수욕장의 구역 구분 관리 -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유영구역 표시 및 종합관리 사무소 설치 등) | 「부록1」참조 |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 규정 제2조(정의) 제4조(예보 발령대상) | 「부록2」참조 |

1.5 매뉴얼 운영 방안

물놀이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안전사고 양상이 매년 달라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장 특성을 고려한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 (1) 물놀이 사고사례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이나 조치사항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물놀이 안전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에서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3) 시설별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기초하여 해당 시설(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상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흐름

| 단 계 | 진행프로그램 | 주요검토사항 |
|-------------|---|--|
| 예방단계 | 물놀이 위험구역 사전조사·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상습지역에 사전통계자료 취합, 분석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일제조사, 지정 |
| |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 예방 대책수립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장소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소방,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봉사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 | 물놀이 위험구역 사전예방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위험표지판, 재난안전선 등을 설치, 체계적 안전관리 체제 구축 • 물놀이 안전사고가 잦은 위험구역 및 예상 가능한 취약구역에 구명환, 조끼, 로프, 등 구조장비 등을 비치하고 사용 방법 계침 |
| 대비 및 대응 단계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순찰, 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동순찰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시기별 집중적 안전계도 방송 및 순찰·홍보활동 실시 |
| |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관리실태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빈발 지역, 위험구역 및 예상가능한 취약구역에 대해 위험경고판 및 재난 안전선 설치 여부 등 안전관리상태 점검 |
| | <p style="text-align: center;">↓ [예보발령]</p> <p>7월 ~ 8월 또는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시 : 비상체제기간 설정·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 [예보발령해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재난부서 공무원으로 전담 TF팀 구성·운영 • 안전사고 빈발지역 현장 CP 설치·운영 (민관합동편성) • 사고빈발지역에 안전요원 등 근무 |
| 검토 및 피드백 단계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사후 처리, 대책방안 등 정보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현황 DB 마련 |
| |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 발생경향 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등 검토 및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원인분석 • 원인별 사고예방 개선대책 수립 등 검토 |
| | 수립된 사고 예방 대응·대책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사항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단계별 보완 • 향후 개선을 위한 환류 역할 • 필요에 따라 매뉴얼 개정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II.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2.1 물놀이 안전사고의 특성 및 발생현황

2.1.1 물놀이 피서객의 심리적 특성

1) 피서객의 심리적 불안 요인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특성

- (1) 해수욕장 등과 같이 대규모 피서객이 집중되는 장소에서는 피서객의 심리상태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되며, 특히 한두명의 무례한 행동이나 이기심, 과시욕 등이 원인이 되어 물놀이 중 집단간 패싸움이나 우발적인 익사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서의 충동성, 욕망의 확장성, 도덕의 모순성, 추리의 단순성]
- (2)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가족, 친구, 동료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속에도 뛰어들게 된다. 이처럼 물놀이 중에 가족, 친구 등이 물에 빠진 경우 피서객이 정에 이끌린 충동적 행동을 취하거나 당황하여 올바른 대처를 못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차적 안전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동정심리, 신임·충성·단결 등의 정상군중심리]
- (3) 피서 중 음주 등으로 흥분한 상태이거나 애인이나 친구 등에게 수영실력을 자랑하려고 충분한 준비 운동없이 수영을 하는 경우 심장마비에 의한 익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며, 특히 청·장년층의 남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정서의 충동, 욕망의 확장성, 추리의 단순성]

※ 부록 3. 피서객의 심리적 특성 참조

2) 피서객 관리의 원칙

- (1) 피서객이 충분히 즐기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을 위해 자율과 규제의 균형 속에서 지원·설득·제재를 적절히 잘 활용하도록 한다.
- (2)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은 휴가철 피서객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피서지에서의 주의사항,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피서객 및 안전요원의 올바른 행동요령 등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 (3) 휴가철 시작 전에 피서객 및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피서지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홍보함으로써 피서객 심리불안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4) 또한 휴가철 피서지에서는 피서객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주의사항 주지 및 계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방송(스피커폰 등)을 통해 주지시켜 줌으로써 피서객의 심리적 불안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 구 분 | 관 리 원 칙 |
|---------------------------|---|
| 피서객 (집단) 밀도의 희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한 소집단으로 행락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객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안전요원을 물놀이 장소에 두고 피서객이 적은 곳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피서객을 분산시키고 장기간 수영 자제유도 - 출입구의 안전요원은 소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규칙 위반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집단이 가까운 장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유도 - 만일 집단 간 패싸움 등 우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사고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피서객의 분산을 유도 |
| 이동의 일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서객에 대한 출입구 제한을 두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피서지내에서의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험구역에 대한 안내 전단지들을 배부하고 가능하면 입장시 출입구에서 구두 설명하여 주의를 환기시킴 - 피서지내에서의 이동방향은 출입구에서 화장실, 출입구의 위치, 출입금지 구역, 각종 편의시설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는 일정 간격으로 게시하여 피서객들의 위험구역 출입을 방지 |

| 구 분 | 관 리 원 칙 |
|-------------------|--|
| 경쟁적 사태의 해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이나 사용빈도가 높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우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일정 간격으로 순찰하도록 하여 피서객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 - 우발사고 발생시는 즉시 피서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행동요령을 안내방송을 통해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 지시의 철 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피서객들이 지켜야 할 내용, 위험구역의 출입제한, 위험구역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킴 - 물놀이 안전수칙, 위험구역 출입 통제 구역 주지 등 출입구에서 배부했던 안내전단지 내용을 일정 간격으로 방송하여 재인지 시킴 |
| 수치심리 유 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서객 중에 만취, 호기 등에 의해 규칙위반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치심을 잃고 노상방뇨, 시비걸기, 고성방가 등의 소란이 발생하거나 소집단간에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 우발사고 발생 가능 - 안전요원이 가능한 한 짧은 간격으로 순찰하도록 하고 위의 행위를 하는 피서객(집단)이 발견된 경우 요원이 직접 또는 안내방송을 통한 수치심을 일깨워 행동을 제지하거나 물놀이 시설에서의 퇴장 등 적절히 조치, 이를 통해 이웃 소집단의 수치심리도 유도하여 규칙 위반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음 |

2.1.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06~'07년)

최근 2년간('06~'07년)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사고 원인에 따른 대응책을 소개한다.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이를 참조하여 시설(지역)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예방·대응책을 세우고 이를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잘 반영하여야 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06~'07년)

(단위 : 건, 명)

| 연도별 | 건 수 | 인 명 피 해 | | | 비 고 |
|-------|------|---------|------|------|-----|
| | | 계 | 사 망 | 실 종 | |
| 계 | 267 | 291 | 258 | 33 | |
| 2006년 | 136 | 148 | 134 | 14 | |
| 2007년 | 131 | 143 | 124 | 19 | |
| 증감(%) | △3.6 | △3.3 | △7.4 | 35.7 | |

※ 타기관(경찰, 해경 등) 자체 처리건수와 부상·구조 건수는 미 포함

- ▶ '06~'07년 2개년 동안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자는 267건, 291명이며, '07년의 경우 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자는 131건, 143명으로 전년도 대비 3.6%와 3.3%로 각각 감소하였다.

□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 원인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안 전 부주의 | 수영미숙 | 음주수영 | 수상레저기구전복 | 높은파도(급류) | 기 타 |
|--------------|---------------|----------------|---------------|---------------|--------------|--------------|--------------|
| 사고자 (사고율) | 291 (100%) | 148 (50.9%) | 56 (19.2%) | 29 (10.0%) | 17 (5.8%) | 15 (5.2%) | 26 (8.9%) |

- ▶ 물놀이 장소별로 안전사고의 원인은 상이하나, 통계적으로 안전 부주의 및 수영미숙 204명(70.1%), 음주수영 29명(10.0%), 수상 레저기구 전복 17명(5.8%) 등의 순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의식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1.3 물놀이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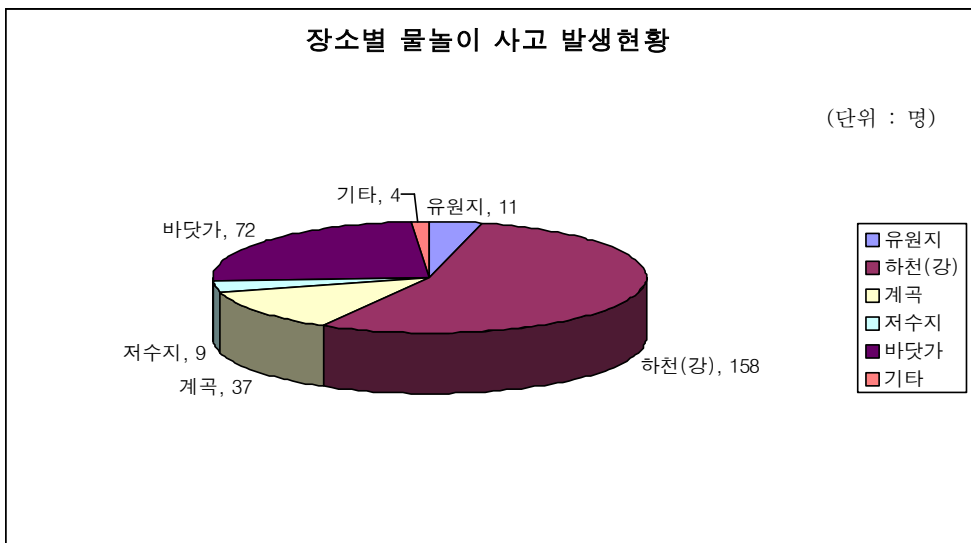
1) 장소별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 사고 원인

(단위 : 명)

| 구 분 | 계 | 유원지 | 하천(강) | 계 곡 | 저수지 | 바닷가 (갯벌, 해변, 방파제) | 기 타 (수영장 등) |
|-------|-----|-----|-------|-----|-----|-------------------------|----------------|
| 계 | 291 | 11 | 158 | 37 | 9 | 72 | 4 |
| 2006년 | 148 | 6 | 78 | 21 | 4 | 38 | 1 |
| 2007년 | 143 | 5 | 80 | 16 | 5 | 34 | 3 |
| 증·감 | △5 | △1 | 2 | △5 | 1 | △4 | 2 |

- ▶ '06~'07년 2개년 동안의 물놀이 안전사고자 291명중 장소별로 살펴보면, 하천·강 158명(54.3%), 바닷가 72명(24.7%), 계곡 37명(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하천·강에서의 물놀이 사고자가 전체의 54.3%를 차지, 다른 물놀이 장소보다 안전사고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하천·강, 계곡 등은 해수욕장에 비해 물놀이 환경이 열악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급류나 수영미숙 및 음주, 수심이 급변하는 지역 등 지형적으로 위험구역 또는 취약구역에서 조난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지 어른들의 보호부주의와 안이한 행동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 ▶ 바닷가의 경우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거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계곡에서는 급류에 휩쓸리거나 수영미숙,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하천·강, 바닷가의 경우 현장의 부표나 위험안내표지판 부족에 의한 조난사고, 안전요원 부족 및 각종 안전구조 장비의 미비로 인한 구급구조 시가지연이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2) §> 대책 및 조치사항

- ▶ 음주 후 물놀이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산간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 인명구조함을 설치·운영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 하천·강의 다리 밑 등 불특정 다수 지역의 예상불가 취약구역에 대하여는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도록 한다.

- ☞ - 위험안내표지판,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 및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 안전요원, 현장 순찰 인원 각종 안전용품, 구조장비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

2) 연령별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 사고 원인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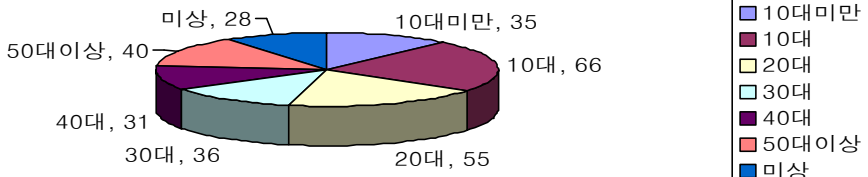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 계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이상 | 미상 |
|-------|-----|-------|-----|-----|-----|-----|-------|----|
| 계 | 291 | 35 | 66 | 55 | 36 | 31 | 40 | 28 |
| 2006년 | 148 | 22 | 40 | 23 | 17 | 13 | 25 | 8 |
| 2007년 | 143 | 13 | 26 | 32 | 19 | 18 | 15 | 20 |
| 증·감 | △5 | △9 | △14 | 9 | 2 | 5 | △10 | 12 |

- ▶ 연령별 인명피해는 전체 291명중 10대 이하가 101명(34.7%)으로 위험요인 인식 부족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20~30대는 91명(31.3%)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자만심 등 무모한 행동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40대 이상은 71명(24.4%)으로서 음주 후 수영으로 심장마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물놀이 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 특히, 사고 발생시 함께 있던 가족, 친구, 동료들이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사전 숙지없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동반 익사하였다.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10대 미만) 어린이의 경우도 35명이나 되며, 보호자의 주의 태만 및 어린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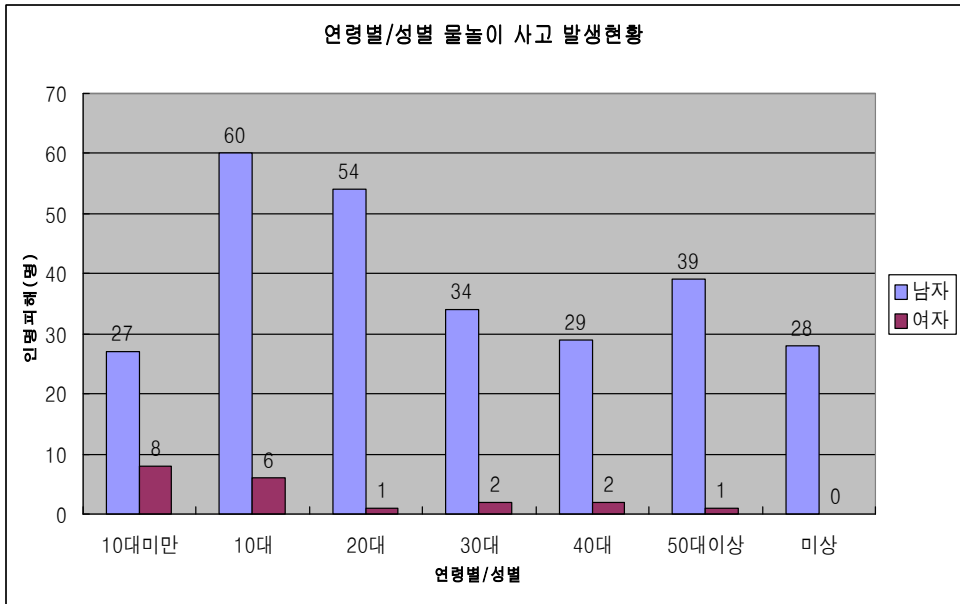
☞ 위험안내표지판,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 및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 연령대별 성비

(단위 : 명, 남/여)

| 구 분 | 계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이상 | 미상 |
|-------|----------------------------|--------------------------|--------------------------|--------------------------|--------------------------|--------------------------|--------------------------|------------------------|
| 계 | 271/20 (93.2% /6.8%) | 27/8 (9.3% /2.7%) | 60/6 (20.6% /2.1%) | 54/1 (18.6% /0.3%) | 34/2 (11.7% /0.7%) | 29/2 (10.0% /0.7%) | 39/1 (13.4% /0.3%) | 28/0 (9.6% /0%) |
| 2006년 | 138/10 (93.2% /6.8%) | 18/4 (12.1% /2.7%) | 37/3 (25.0% /2.0%) | 22/1 (14.9% /0.7%) | 16/1 (10.8% /0.7%) | 13/0 (8.8% /0%) | 24/1 (16.2% /0.7%) | 8/0 (5.4% /0%) |
| 2007년 | 133/10 (93.0% /7.0%) | 9/4 (6.2% /2.8%) | 23/3 (16.1% /2.1%) | 32/0 (22.4% /0%) | 18/1 (12.6% /0.7%) | 16/2 (11.2% /1.4%) | 15/0 (10.5% /0%) | 20/0 (14.0% /0%) |

- ▶ 성별 인명피해는 전체 291명 중 **남성의 사고율이 93.2%인 2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연령별대에서도 남성이 약 93%정도로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에서의 남성 사고율이 96%인 88명으로 나타나 안전의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요구된다.



- ▶ 사고 발생시 함께 있던 가족, 친구, 동료들이 구조방법 및 응급 처치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함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동반 익사한 경우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의 경우도 27명(9.3%)를 차지하였는데 보호자의 주의 부족 및 어린이 안전교육 소홀에 의한 결과이다.**

(2) §> 대책 및 조치사항

- ▶ 음주 후 물놀이를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초등학교부터 물놀이 안전교육 및 응급대처 요령 등을 교육시킨다.**

- ▶ 휴가철에 음주 후 수영 중에 심장마비 등에 의한 익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 물놀이 중인 피서객에게 확성기 등을 통해 안전표지판의 기재 내용을 주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 시설 입구 등 행락객의 통행이 잦은 곳의 안전표지판에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 어린이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알려주고, 어린이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동반인의 행동요령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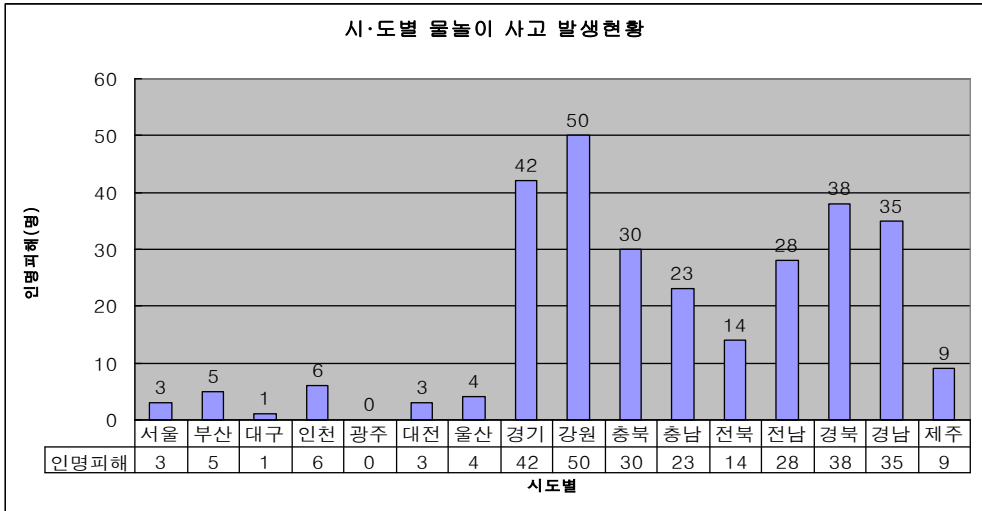
3) 지역별 사고원인 및 대응책

(단위 : 명)

|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계 | 291 | 3 | 5 | 1 | 6 | 3 | 4 | 42 | 50 | 30 | 23 | 14 | 28 | 38 | 35 | 9 |
| 2006년 | 148 | 2 | 4 | 1 | 5 | 2 | 4 | 22 | 17 | 17 | 14 | 9 | 11 | 16 | 22 | 2 |
| 2007년 | 143 | 1 | 1 | 0 | 1 | 1 | 0 | 20 | 33 | 13 | 9 | 5 | 17 | 22 | 13 | 7 |
| 증·감 | △5 | △1 | △3 | △1 | △4 | △1 | △4 | △2 | 16 | △4 | △5 | △4 | 6 | 6 | △9 | 5 |

(1) §> 사고 원인

- ▶ 시·도별 인명피해는 강원 50명(17.2%), 경기 42명(14.4%), 경북 38명(13.0%), 충북 30명(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하천·계곡 등은 물놀이 통제로 사고 발생 빈도가 낮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 특히 하천·강, 바닷가, 계곡 등 인명사고 발생우려 지역이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취약구역에서의 사고로써 안전요원의 부족과 예방 및 경계 활동이 미흡한 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대책 및 조치사항

- ▶ 위험구역 및 예상가능 취약구역 등과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책임기관의 감독하에 반드시 안전표지판(물놀이 금지 또는 물놀이 중 주의사항, 물놀이 사고 발생시 긴급연락처,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전에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한다.
- ▶ 물놀이 시기 도래전에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 ▶ 하천의 다리 밑 등 불특정 다수지역의 예상불가 취약구역에 대하여는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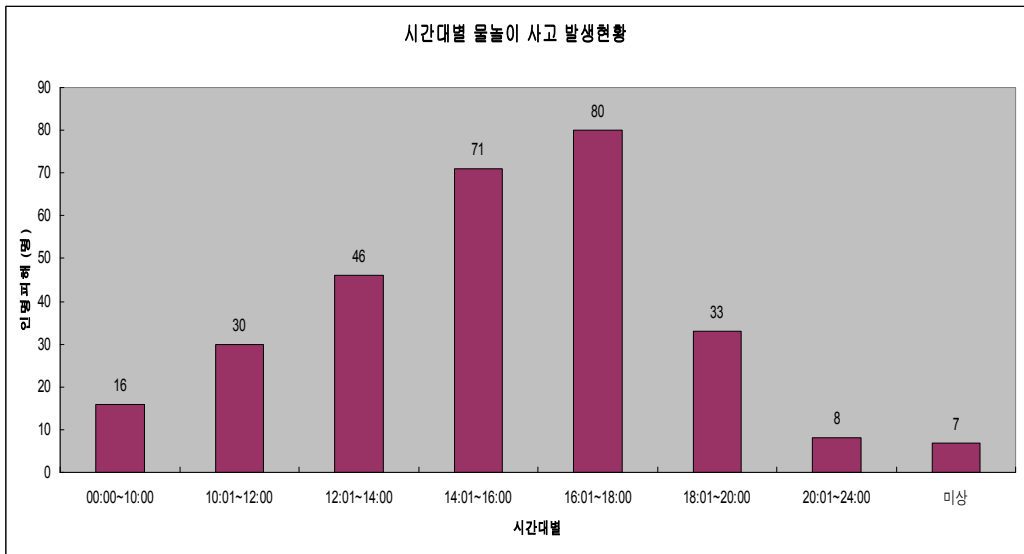
4) 시간대별 사고원인 및 대응책

(단위 : 명)

| 구 분 | 계 | 00:00~10:00 | 10:01~12:00 | 12:01~14:00 | 14:01~16:00 | 16:01~18:00 | 18:01~20:00 | 20:01~24:00 | 미상 |
|-------|-----|-------------|-------------|-------------|-------------|-------------|-------------|-------------|----|
| 계 | 291 | 16 | 30 | 46 | 71 | 80 | 33 | 8 | 7 |
| 2006년 | 148 | 11 | 13 | 27 | 31 | 44 | 15 | 7 | 0 |
| 2007년 | 143 | 5 | 17 | 19 | 40 | 36 | 18 | 1 | 7 |
| 증·감 | △5 | △6 | 4 | △8 | 9 | △8 | 3 | △6 | 7 |

(1) §> 사고 원인

- ▶ 익사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조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12시~18시 사이에 197명(전체 물놀이 인명사고 중 67.7%)의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 18:00 이후 수영하기에 부적절한 시간대에도 안전부주의로 41명(전체물놀이 인명사고 중 14%)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 대책 및 조치사항

- ▶ 안전사고 집중 발생 시간대에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를 늘리고 집중 관리한다.
- ▶ 위험구역 및 예상가능 취약구역 등과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책임기관의 감독하에 반드시 안전표지판(물놀이 금지 또는 물놀이 중 주의사항, 물놀이 사고 발생시 긴급연락처,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전에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한다.
- ▶ 물놀이 시기 도래전에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 ▶ 하천·강의 다리 밑 등 불특정 다수지역의 예상불가 취약구역에 대하여는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도록 한다.

☞ **안전사고 집중 시간대인 12:00~18:00인 오후시간대에 안전요원의 배치 등 집중 관리**

2.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2.2.1 물놀이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1) 도입 배경 및 근거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제도는 특정시기 및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재난정보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 (1) 국민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 (2) 관계기관에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부록 2 : 소방방재청 훈령 참조

2) 등급분류 및 발령기준

-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는 안전사고정보, 주의보 및 경보로 등급을 구분하여 발령한다.

| 등 급 분 류 | 정 의 |
|--------------|--|
| (1) 안전사고 정보 | -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예보 |
| (2) 안전사고 주의보 | -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행하는 예보 |
| (3) 안전사고 경보 | -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 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행하는 예보 |

2.2.2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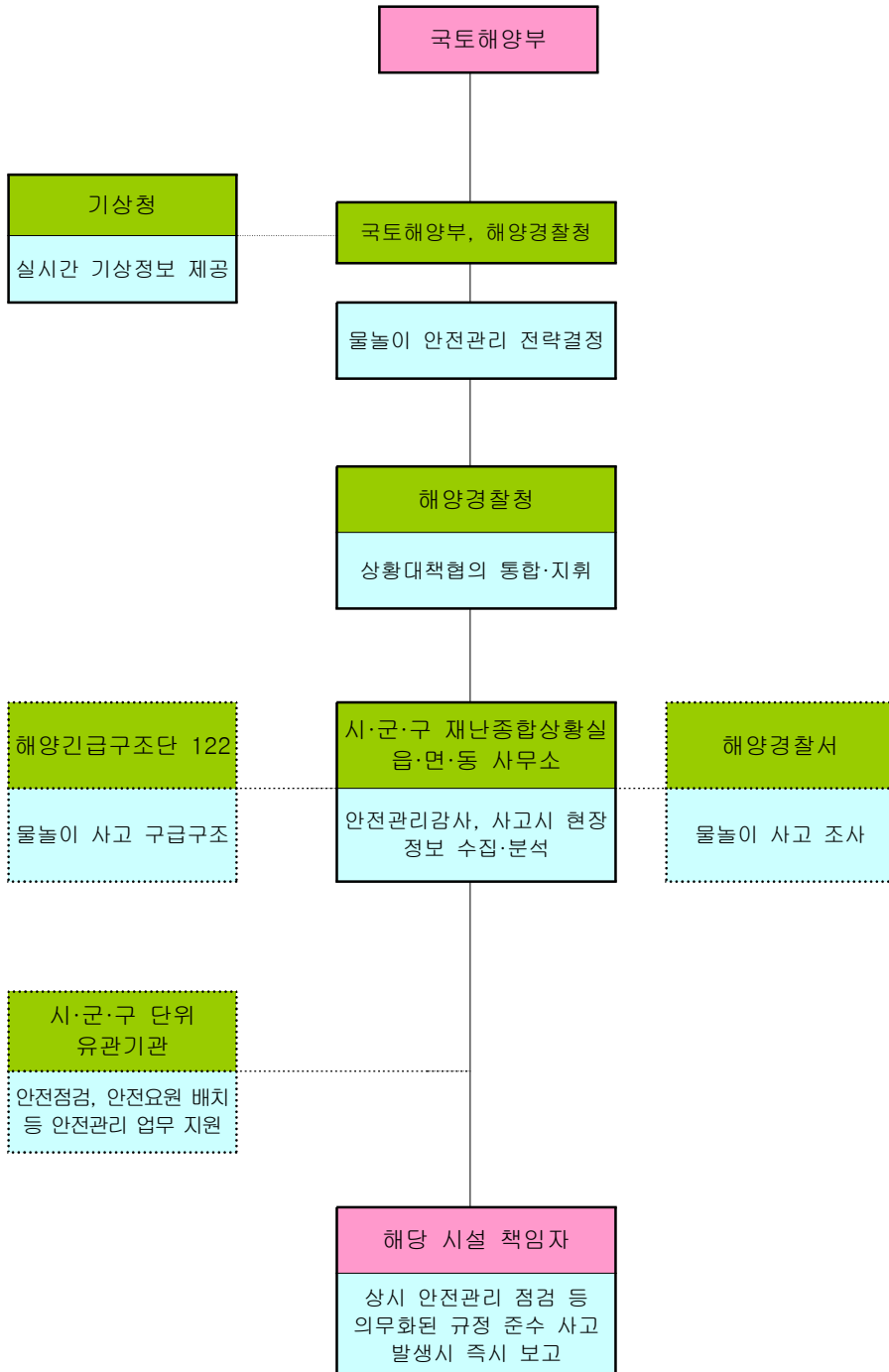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그 기능과 구성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물놀이 안전관리체제의 구성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partnership)하고, 매뉴얼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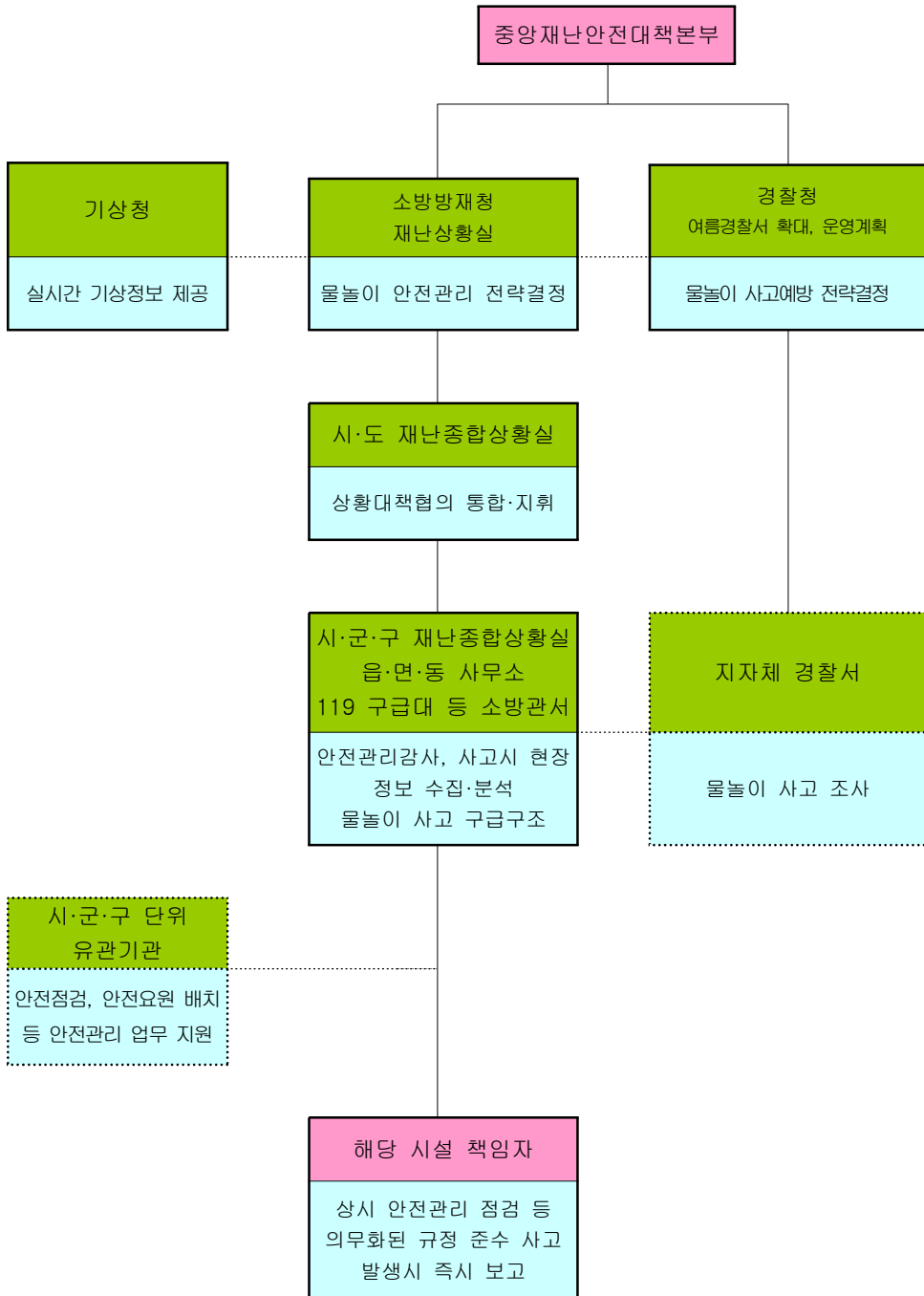
1)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

| 기 능 | 기 관 |
|-------------------|--|
| 물놀이 안전 관리·감독기관 |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 |
|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기관 | - 해상긴급구조단, 해양경찰서, 119구조대 등 소방관서, 지자체 경찰서 |
|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자 등 | - 해수욕장, 하천, 저수지, 유원지 및 갯벌 등 물놀이 시설을 관할하는 각 시·군·구 또는 시설소유자 - 물놀이 시설 등의 안전 점검, 시설·유지 보수, 요원배치 등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자 |
| 교육 및 홍보 기관 | -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 각 시설관리기관, 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해병대전우회, 세이프키즈코리아, 학교 등 교육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그 외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
| 정보공유 유관기관 | - 소방방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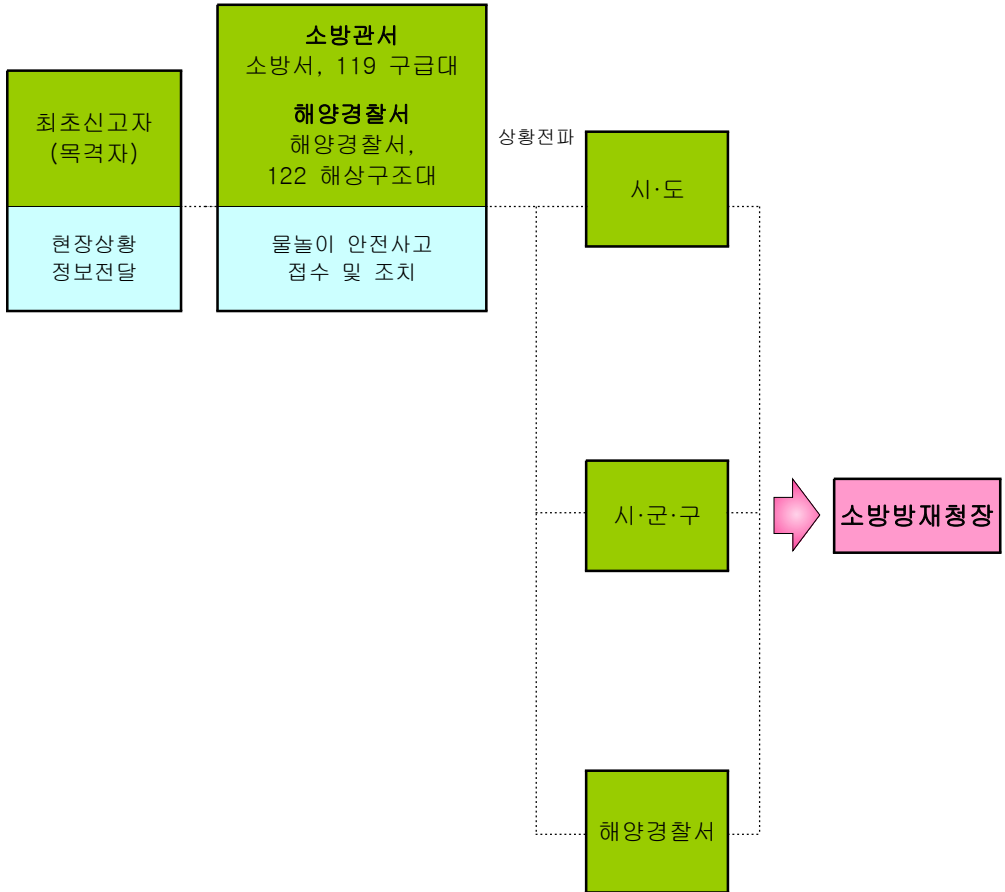
물놀이 안전 관리체제 [해수면 물놀이 안전]



물놀이 안전 관리체제 [내수면 물놀이 안전]



물놀이 안전사고 상황전파



2)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의 주요 기능

- (1) 물놀이 안전관리기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책임기관(시설책임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로 구분하고, 각 구성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다음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 행 역 할 |
|-----------|---|
| 안전관리체제 운영 |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의해 ① 시설의 상시 안전관리 ② 휴가철 돌입 전의 집중 안전관리 ③ 물놀이 중의 현장 안전관리의 3단계 걸친 안전관리 수행 |
| 예산 확보 | -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홍보, 교육, 관리감독 지휘 체제 구축 및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 교육 및 홍보 | -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를 통해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행동요령 주지를 위해 물놀이 사고 예방 원칙을 관계기관 및 시설의 책임자는 물론, 피서객에도 휴가철의 시작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
| 정보의 공유 | -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및 대응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공유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은 물론 학계, 민간의 요청시 정보 제공 |

- (2) 물놀이 안전을 위한 예방·대응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관리체제의 구성조직은 물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T/F팀」 및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제의 구성 조직」에 포함된 관계기관들과도 연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별 역할

각 해당기관별 안전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 관리·감독 기관

| 구분 |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
|-----------------------|--|
|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내·해수면의 물놀이 안전 관리 체제 구축 및 운영 - 물놀이 안전 관리 유관기관간 상호 유기적 협조로 역할 분담 수행 - 물놀이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각 유관기관의 「물놀이 안전 매뉴얼」 보급 - 각 유관기관의 책임자가 「물놀이 안전 매뉴얼」 또는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 - 각 유관기관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 수집 및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책 마련 및 보급, 관계기관의 요청시 정보 제공 - 마련된 대책은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반영 및 각 유관기관에 배포 - 여름 휴가철 돌입 전부터 대국민 및 물놀이 시설 관리자의 주인의식 고취 홍보 - 물놀이 안전관리 기관의 주요기능 4가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재난관리책임기관일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및 해제 |
| 소 방 방 재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위기관리 기관으로서 「물놀이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수렴, 긴급상황시 재난상황실 운영 및 방향 최종 결정 -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체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 「물놀이 안전 매뉴얼」 작성 및 보급과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뉴얼 개정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매뉴얼 준수 여부 관리·감독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 안전사고 빈발지역의 현장 C/P 설치 등의 긴급 대응에 필요한 의사 결정 및 전파 - 물놀이 시설(지역)의 상태평가기준 제시 - 물놀이 안전 예보의 발령 및 전파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D/B 구축 |

| 구 분 |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
|--------------------|---|
| 국·도·시·군·구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면에서의 물놀이 안전관리 전략의견 수렴 및 최종 결정, 사고예방 전략 결정 - 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체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 해수면 수난구호 총괄기관으로서 규정에 따른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역할 수행 - 지역별 수난구호대책위원회 개최, 안전관리 인력·장비배치·지원체제 등 안전 대책 수립 - 즉시 대응가능한 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 구축 및 운영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전파 - 민·관이 포함된 긴급구조대 편성·배치, 감시탑의 설치 기준 마련 - 현장 C/P 설치 등의 대책 수립 및 수행 - 민·관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 해수면 물놀이 안전을 위한 구조임무·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배치인력 등의 기준 제시 - 사고사례 및 예방대비 대응대책 등의 통보 |
| 시·도·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의 물놀이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따른 안전지도 및 감독 실시 - 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안전관리 감독기관의 지시 및 협의 하에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시설 안전점검, 예방대비 대책 마련 여부 파악 등 상황 관리·감독 - 물놀이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 사고 발생시 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 대책 마련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물놀이 안전사고관리시스템에 현황 입력·관리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전파 - 해당 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총괄 후 상위기관에 보고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 협조 독려 - 안전사고 빈발지역의 현장 C/P 설치 - 해당 지역의 물놀이 시설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및 해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및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관리 -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 특이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 특성이 반영된 안전점검 항목 등이 합리적·효율적으로 해당시설의 안전점검 항목에 반영되도록 지도·관리 - 사고사례 및 예방대비 대응대책 등의 보고 |

(2)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기관

| 구분 | 대응기관의 역할 |
|----------------------|--|
| 구급대 소방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급대 등 소방관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지침에 따름 - 인명구조 지원 및 응급환자 후송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신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구조요원의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긴급 차량 수배, 구조·구급 장비 등의 준비 및 작동성능 사전점검, 보수 유지 - 구조·구급 상황 종료후 사건조사 및 대응책이 고찰된 사건조사 보고서 제출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발령에 따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 강화 - 관계기관이나 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사건조사 보고서 등의 정보제공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적극 협조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전파 |
| 해양경찰서 경 찰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청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지침에 따름 - 해수욕장 수난구조 대책위원회 운영 및 구조·구급 활동 - 물놀이 시기에 안전사고 발생 신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 해당지역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순찰 실시 - 피서지내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 활동 - 사고 발생시 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 대책 마련 - 해당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총괄후 상위기관에 보고 - 해당지역 내의 물놀이 시설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에게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발령에 따른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활동 -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적극 협조 - 각 유관기관의 책임자가 「물놀이 안전 매뉴얼」 또는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전파 |
| 해상 구급 구조 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긴급구조단의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신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구조요원의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긴급 차량 수배, 구조·구급 장비 등의 준비 및 작동성능 사전점검, 보수 유지 - 구조·구급 상황 종료후 사건조사 및 대응책이 고찰된 사건조사 보고서 제출 - 관계기관이나 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사건 조사 보고서 등의 정보 제공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발령 상황 전파 - 물놀이 안전 관리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 적극 협조 |

(3) 물놀이 시설 관리자 등

- ▶ 물놀이 시설 관리자 등은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잘 활용하여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준하여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구분 | 물놀이 시설 관리자 등의 역할 |
|--------------|---|
| 물놀이 시설 관리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및 역할분담을 숙지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안전매뉴얼에 기초하여 「자체 물놀이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운영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함 -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작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단 특정 관리대상시설(지역), 위험구역, 예상가능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거(예상가능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준하여),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는 해당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및 조치, 예방대책,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및 응급 구조·구급 비상 연락망, 구조요원의 구성 및 배치 계획, 실시간 기상정보수신 방안, 자체 시설점검 리스트, 안전점검 항목 피드백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물놀이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시행에 적극 협조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발령시 자체 물놀이 안전매뉴얼에 따라 조치 - 작성한 자체 물놀이 안전매뉴얼을 상위기관에 보고 및 배포 - 지역의 상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기관,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매년 물놀이 사고 집중 발생시기가 경과한 직후 물놀이 사고사례, 발생경위 및 원인, 재발 예방대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상위기관에 보고 및 정보제공 -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 발령사항 전파 -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경우 관할 지역내의 물놀이 시설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및 해제 - 물놀이 시설 관리자는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놀이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대책마련 -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합하여 매년 물놀이 사고 집중 발생시기가 경과한 직후 물놀이 사고사례, 발생경위 및 원인, 재발 예방대책 등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상위기관에 보고 및 정보 제공 - 해당지역의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물놀이 시설의 업무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상위책임기관에 원조요청 등의 중간 연락책으로서의 업무 수행 -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보고 -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한발 앞선 조치수행에 항상 최선을 기함 |

- ▶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 발생시기에는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점검 후 조치를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 구 분 | 시설의 점검 주기 및 점검후 조치 |
|----------------|--|
|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의 물놀이 사고 집중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적어도 물놀이 사고 발생시기 (해수욕장 개장일 기준) 2주일 전에 물놀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수행 - 해수욕장 개장일을 기준 개장 2일전에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조치완료, 이를 상위기관에 보고 -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발생기간 동안은 적어도 1주일 단위로 안전점검 수행 - 자체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기초하여 물놀이 기간동안의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숙지 및 비상연락망, 자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위험요인의 해소 및 관리, 응급구조·구급 연락망, 구조요원의 구성 및 현장 배치 계획 등은 해수욕장 개장일을 기준으로 개장전에 확인 및 조치 완료 -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발생기간 동안은 실시간 기상정보 수신상황을 상시 체크 |
|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비상체제 운영기간 동안은 수시 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상위기관에 조치결과 보고 |
| 위험구역 |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 주기 및 조치사항에 준함 |
| 취약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가능 취약구역은 위험구역에 준함 - 예상불가 취약구역은 위험요소 발생 발견시 즉시 점검하고 조치함 |
| 일반 물놀이 시설 | - 공통사항에 준함 |

(4) 교육 및 홍보 기관

| 교육 및 홍보 기관의 역할 | |
|----------------|--|
| 기관명 | -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 각 시설관리기관, 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해병대전우회, 세이프키즈코리아, 학교 등 교육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그 외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
| 역 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정책연구수행 각 해당기관에의 배포 - 물놀이 안전 요원의 교육 및 훈련 대행 실시 - 정부, 학교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휴가철 물놀이 안전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수상안전교육, 인명구조봉사 활동, 홍보활동 - 정부기관에의 교육 훈련 정책에 대한 자문 |
| 비 고 | - 부녀자회, 동통장, 공익요원 등을 활용, 물놀이 안전 집중관리 시기 이전부터 홍보 |

(5) 정보공유기관

| 정보공유 기관 및 역할 | |
|--------------|--|
| 기관명 | - 소방방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
| 역 할 | - 폭염 및 집중호우 등의 기상정보 과년도(3년간)와 비교, 실시간 예보 등 - 기관별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 정보 공유 등 |

2.2.3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구역 지정·운영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관리

(1) 지정근거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 ▶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파악

(2) 일제조사 및 지정방법

① 조사대상

- ▶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구역(지역) 및 예상가능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시기

- ▶ 일제조사 : 매년 5월(연 1회 실시)에 실시한다.
- ▶ 수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시한다.

③ 조사방법

- ▶ 재난관리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조사한다.
-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실시한다.

④ 일제 조사시 유의사항

- ▶ 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대상시설의 관리부서를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함으로써 관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 조사시에는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로 정리한 후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 조치

- ▶ 대상시설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법에 의거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사용 제한을 요할 정도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지역은 “물놀이 특정관리대상시설(E등급)”로 지정하여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설정 기준 >

◇ 하천 등과 같이 여러 행정구역을 걸쳐 있는 동시 동일 시설명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최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로 정해진 단위 구역별로 별도 명칭 부여
예) ○○도 ○○시 ○○구 ○○동 ○○천 1구역(임의 별도지정)

- ▶ 물놀이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위험구역 설정·관리 및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고시한다.
-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해제는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종료시 자동 해제됨
- ▶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신규 발생이나 기존 시설의 각종 변동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D/B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D/B에 점검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입력·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두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
- ※ 기타 지정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참조

(3) 물놀이 특정대상관리시설의 관리·운영

- ▶ 물놀이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관리는 유관기관별 역할을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

-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타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지역)을 제외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시설(지역)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이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관할지역내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촉구하여야 함

2) 위험구역(Safety Zone) 지정·관리

(1) 위험구역(safety zone)의 지정·관리

- ▶ 관리주체 : 자치단체

- ▶ 지정 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된 곳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지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시설)을 위험구역(safety zone)으로 설정,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하고 물놀이 금지 및 출입통제

(2) 위험구역(safety zone)의 운영

- ▶ 위험구역에는 물놀이 안전선을 설치하되 기존의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부표, 로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물놀이안전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방책이나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구역(safety zone)의 범위, 설치기간, 설치사유, 긴급연락처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홍보방송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입수 금지 등 조치
- ▶ 위험구역(safety zone)으로 설치된 지역·장소를 홍보함으로써 이용객의 출입을 사전 통제한다.
 - 물놀이 장소 입구에 안내게시판 미리 설치
- ▶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위험구역이 수시로 변동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책임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예·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험구역(safety zone)”을 설정·운영하고 주민 및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 출입통제 거부자 또는 “위험구역(safety zone)”을 훼손하면서 위험 지역에 진입하는 등의 위법행위자는 의법처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하도록 한다.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물놀 이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험구역(safety zone)”설정 해지를 통보한다.

□ 일제조사 흐름도

| 조 사 절 차 | 추진기간 | 추진내용 |
|--|-------|--|
| 기본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 시행계획 수립 <시설관리부서> | 매년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 ↓ | | |
| 일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 매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시설 선별 ·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 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고시 · 위험구역(safety zone) 설정·관리 ·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및 안전조치 통보 |
|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대책 수립 <재난관리부서> | 매년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작성 및 안전 관리대책 수립 ※ 매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자료 확인 후 확정 |

【별표2】

□ 물놀이 시설(지역) E급 상태평가 기준

| 등급 | 상 태 | 평가(조치)기준 |
|----|---|------------------------------------|
| E급 |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시설·지역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입수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시설) |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제한·금지 조치가 필요한 지역(시설) |

2.2.4 물놀이 취약구역 운영

1) 물놀이 취약구역 적용 범위

- (1)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다분하거나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질 경우 수심이 깊고 급류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장소, 주변공사 등과 같은 일시적인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 물놀이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한시적이고 유동적으로 높아지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지역
- (2)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지역) 중 과거 사고 사례는 없었으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 소용돌이 발생 등으로 인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하천이나 계곡 등 물놀이 지역
 - ▶ 폭염 등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취약구역의 설정 및 해제

지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물놀이 시설 관리자, 지역실정에 밝은 재난관리업무자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질 경우 수심이 깊고 급류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의 물놀이 장소, 한시적으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놀이 지역에 대해 취약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되 이들 물놀이 취약구역이 평수위와 같거나 낮을 경우, 유동적 위험요인 해소시에는 즉시 해제한다.

(1) 위험요인 예측 가능 구역

- ▶ 특정관리대상시설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피서철 시작전 (6월~7월 중)에 선정,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위험요인 및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권고한다.

- ▶ 설정 및 조치사항 안내시기 :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동일 시기
- ▶ 조치사항의 실시시기 : 위험요인 발생 발견 즉시

(2) 위험요인 예측 불가 구역

- ▶ 위험요인 예측이 어려운 구역은 발생 즉시 취약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위험요인 및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권고한다.
- ▶ 설정 및 조치사항 안내시기 : 위험요인 발생 발견 즉시
- ▶ 조치사항에 따른 대책 실시시기 : 위험요인 발생 발견 즉시

3) 물놀이 취약구역의 관리

(1) 취약구역 설정 후 조치사항

- ▶ 물놀이 시설 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놀이 시설 관리자 지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생시를 대비한 경고 또는 위험안내표지판, 구명장구 및 사용 요령을 취약구역에 비치토록 조치하고 3일 전(해수욕장 개장을 기준으로)까지는 물놀이 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른 해당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조치한다.
- ▶ 취약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권고된 조치사항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 실정에 맞춰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물놀이 기간 동안의 취약구역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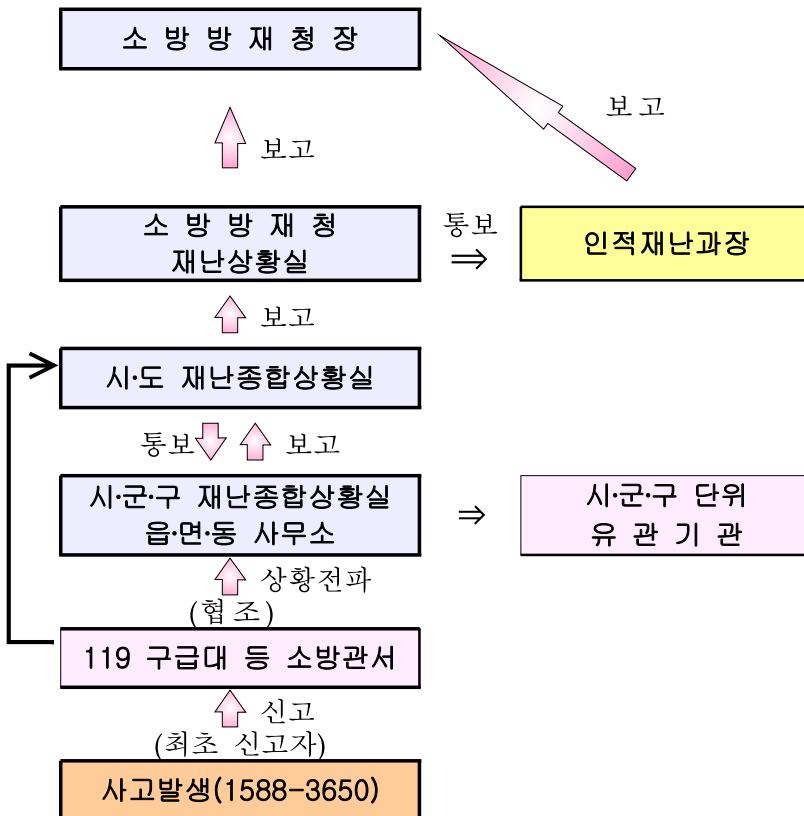
- ▶ 위험요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 지역 순찰을 실시토록 한다.
- 집중호우 등으로 유량, 유속 증가 및 폭염으로 인한 이용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 및 기타 다른 위험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위험요인 발생 예상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빈도를 높이도록 한다.
- ▶ 위험요인 발생 즉시 물놀이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발생 상황전파를 위한 안내방송, 홍보 등을 통해 물놀이 이용객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 위험요인 발생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물놀이 안전선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물놀이 안전선 설치에 생략할 수 있으나,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자동유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홍보방송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입수 금지 등 조치
-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산간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인명구조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인명구조함이 없는 물놀이 장소에는 순찰자가 구명 장비를 휴대하고 순찰한다.

2.2.5 물놀이 안전사고 비상체제 운영

1) 물놀이 안전사고시 신고 및 보고체계

물놀이 안전관리체제의 구성 및 역할분담에 근거를 두고 다음의 물놀이 상황관리체계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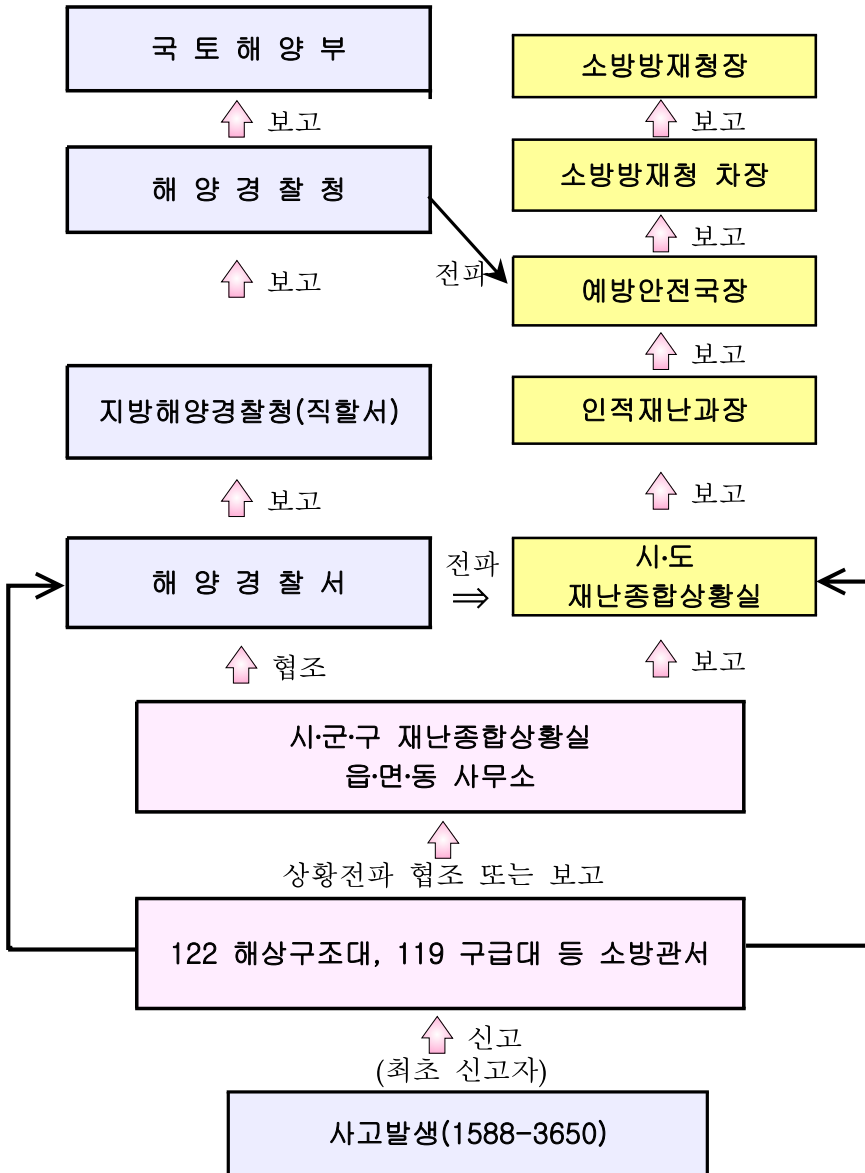
물놀이 상황관리 체계(내수면)



※ 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의 긴급 보고처 (물놀이 안전사고관리시스템 보고 원칙)

- 소방방재청 물놀이 전담T/F팀(인적재난과) : 02-2100-5280(FAX:02-2100-5279)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02-2100-4949(FAX:02-2100-5590)
- 소방방재청 U-119과 : 02-2100-5367(FAX:02-2100-5369)

물놀이 상황관리 체계(해수면)



※ 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의 긴급 보고처 (물놀이 안전사고관리시스템 보고 원칙)

-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 122
- 소방방재청 물놀이 전담T/F팀(인적재난과) : 02-2100-5280 (FAX:02-2100-5279)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02-2100-5500(FAX:02-2100-5590)

2)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비상체제기간 설정·운영

- (1)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주의보·경보를 발령한 때로부터 비상체제 가동 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재난상황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 ▶ 소방방재청 인적재난과 내에 전담 T/F팀 구성 및 재난상황실과 비상연락망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해당자에게 배부한다.
- (2) 자치단체별로 물놀이 시설 관련 책임기관의 해당 업무자를 포함한 재난부서 공무원으로 전담 T/F팀 구성토록 하고 비상체제 가동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 ▶ 시·도 : 해당부서 과장 외 2명, 시·군·구 : 해당부서 과장 외 1명
 - ▶ 비상연락망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해당자에게 배부한다.
- (3) 소방방재청의 전담 T/F팀, 자치단체별 물놀이 시설 관련 업무자 등의 전담 T/F팀 및 물놀이 시설 운영자는 물놀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의 구성 및 운영

- (1) 소방방재청 인적재난과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한다.
- (2) 운영기간 : 물놀이사고 비상체제기간 동안의 한시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무
 - ▶ 자치단체별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구역 및 위험구역(safety zone)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 각종 물놀이사고 방지대책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4) 안전사고 빈발지역 현장 CP 설치·운영

- (1) 장소 :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 지역(필요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선정)
- (2) 편성 : 민·관합동 편성(재난·시설·소방부서, 민간단체 등)
- (3) 임무
 - ▶ 사고 빈발지역 안전 총괄 지휘 및 긴급구조 업무수행
 - ▶ 소방관서와 유·무선 통신망 구축 운영 등

5) 위험구역(safety zone) 안전관리 상태 점검

- ▶ 물놀이 비상체제기간에는 위험구역(safety zone)의 설정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비한 부분의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한다.
- ※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홍보방송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입수 금지 등 조치 철저

6) 취약구역 안전관리 상태 점검

- ▶ 물놀이 기간에는 취약구역의 설정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취약구역 운영시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 홍보방송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입수 금지 등 조치 철저
-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산간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인명구조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 최소화
 - 인명구조함이 없는 물놀이 장소에는 순찰자가 구명장비를 휴대하고 순찰

2.2.6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교육

1)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1)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기간 및 배치기준

▶ 운영기간

- 해수욕장 : 개장기간
- 기타장소 : 7. 1 ~ 8. 31(2개월)

※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연이용객별 배치기준

(단위 : 명)

| 연이용객 | 30만미만 | 30만이상 ~60만미만 | 60만이상 ~90만미만 | 90만이상 ~120만미만 | 120만이상 ~150만미만 | 150만이상 |
|------|-------|-----------------|-----------------|------------------|-------------------|--------|
| 배치인원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 30이상 |

※ 수난구조·수변안전요원 비율을 2:3으로 하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2) 지자체 안전요원 운영기간 및 배치기준

▶ 운영 기간 및 장소

- 운영기간 : 7. 1 ~ 8. 31(2개월)
- 하천, 계곡, 저수지, 유원지 등 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물놀이 사고빈발지역별 배치기준

- 사고발생 우려지역 : 일정간격 순찰
- 사고빈발지역 : 1개 위험구역당 1명 이상 근무

※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오후시간대(12:00~18:00)에 집중 배치

2) 물놀이 안전요원 자격기준

(1) 수난구조요원

- ▶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소지자
- ▶ 수난구조관련업무 1년이상 종사자
- ▶ 수난구조관련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과목 이수자
- ▶ 기타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 ▶ NGO회원, 대학생·대학원생, 의용소방대원
-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 기타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3) 주차관리 공익요원 및 지역주민 등 (지자체 안전요원 활용의 경우)

- ▶ 상기 수변안전요원의 기준을 갖춘 자 우선
-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 근무에 태만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책임정신이 투철한 자 등

§ 자치단체의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3) 자원봉사자 모집·선발

(1) 시기 : 4 ~ 5월 초까지 선발 완료

(2) 규모 : 시·도별 인원기준에 따라

(3) 모집방법

- ▶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모집
- ▶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 실시 가능

(4) 선발후 조치사항

- ▶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물놀이 시설의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자료 배부한다.

- ▶ 연고지 주변의 물놀이 시설(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고지한다.
- ▶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물놀이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고지 및 주의시설, 위험구역, 취약구역 등의 안전요원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숙지하도록 지시한다.

4)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 (1) 시기 : 5 ~ 6월중
- (2) 원칙 :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 구분
- (3) 장소·내용 등

| 대 상 | 장 소 | 내 용 | 시 간 |
|--------|----------------------------------|--------------------------------------|--------|
| 수난구조요원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 스킨스쿠버, CPR,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 40시간이상 |
| 수변안전요원 | 소방본부 소방서 | CPR,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 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 8시간이상 |

※ 시·도별 별도 기준 수립 검토

5) 근무시간 및 임무

| 구 분 | 119 수상시민구조대 | 자치단체 안전요원 |
|------|---|---|
| 근무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시간 명확시 : 개장시간대 • 불명확시 : 일출직후 ~ 일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 집중발생 시간대(12:00~18:00) • 열대야 기간내 : 심야야간 물놀이 방지를 위해 야간 순찰 ※물놀이장소 여건감안 조정가능 |
| 임 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수중 인명구조 및 환자 응급처치 •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 물놀이 중 피서객의 안전지도 및 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수중 인명구조 및 환자 응급처치 •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 물놀이 중 피서객의 안전지도 및 계도 |

6) 기타 활동

(1) 심폐소생술(CPR) 체험장 운영 및 체험차량 배치

▶ 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 체험차량을 통한 안전체험

▶ 대상 : 물놀이 장소의 일반 국민

▶ 기타 국민안전을 위한 부대행사 개최 등

- 응급처치 시연, 시민체험, 사진전 개최, 홍보 리플렛 배포 등

(2)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 시 기 : 개장·폐장 전후 및 운영기간 중 수시

▶ 주 관 : 소방방재청(U119과), 소방본부·소방서

▶ 대 상 : 물놀이 장소의 일반 국민

▶ 방 법

- 보도안 배포, 브리핑·인터뷰·캠페인 실시, 동영상 제공

▶ 119기마안전순찰대 운영

- 장소 : 해수욕장 등 다중운집 물놀이 장소
- 복장 : 기동복, 조끼, 모자, 홍보 어깨띠 등 착용
- 주요활동 : 배치장소내 안전사고 예방 계도 및 순찰

2.2.7 대국민 물놀이 안전교육 및 홍보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 (1) 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 각 시설관리기관, 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해병대전우회, 세이프키즈코리아 등과 같은 전문 안전교육기관과 연계시켜 물놀이 안전수칙 등 심도있는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수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수영교육 실시

- (2) 수영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된 하천, 계곡, 바다 등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게시판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통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 (3) 효율적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수영을 금지시키기보다는 수영 가능한 지역을 집중홍보 한다.

2) 학교 등을 통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교육시기/주기


- ▶ 교육시기 : 해수욕장 개장시기 이전(6월 초)
- ▶ 교육주기 : 1회 / 매주

(2) 교육대상/주제

- ▶ 유치원, 학교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청소년 여름캠프

(3) 교육내용

-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대한 비디오 상영
- ▶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 구별
- ▶ 구조구급 실습
 - 학교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 구조구급 및 상황대처 요령 등
- ▶ 물놀이와 관련한 관련법 등 위법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내용 소개 등

 **교육기관을 통한 물놀이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필요**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1) TV 방송사 활용, 자막방송 지속 실시에 의한 홍보

- ▶ 요청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7조
- ▶ 기 간 : 7. 1 ~ 8.15까지
- ▶ 요청기관 : 방송위원회, KBS, MBC, SBS, YTN 등

(2)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 ▶ 홍보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 구축
- ▶ 게재기간 : 7. 1 ~ 8. 31(2개월간)

(3) 이동통신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 ▶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CBS문자메세지 전송
- ▶ 재해문자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물놀이 안전사고 경고 홍보 등

(4)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방송

- ▶ 하계바캉스 차량 이동 및 야영시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방송을 활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로 피서객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갯벌체험 활동시 전문안내인, 어촌계원,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과 동행토록 계도 홍보
- 물놀이 사고 취약자는 구명동의 등을 반드시 착용
- 음주 후 수영 절대 금지 및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는 어른들의 시야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도
- 하천이나 계곡 등 급류지역과 소용돌이 지역에서 수영금지 등

(5) 현지 홍보방송

- ▶ 가두방송차량, 물놀이 위험지역에 설치된 마을앰프, 민방위 메가폰,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현지 홍보 실시
- ▶ 특히, 바닷가 갯벌의 경우 밀물 30분전에 나오기, 술 마시고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지 않는 갯골 접근 금지, 구명동의·튜브 등 안전장비 준비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2.3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대책

2.3.1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1) 특별 기동순찰반 운영

- (1) 편성 : 지역실정에 맞게 인원편성(공무원, 소방관서, 시민단체 등)
- (2) 임무
 - ▶ 지역별 소규모 물놀이 지역까지 사전 파악, 지자체의 활동상황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사고 빈발지역 위험경고판 및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시 설치토록 한다.
 - ▶ 취약시기별 집중적 안전계도 방송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한다.

2) 민·관·군간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1) 구조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소방, 군부대, 경찰 등의 유관기관 및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단체 등과 지자체 상황실간 비상연락망(Hot-Line) 등 수난구조체계를 구축한다.
 - ▶ 「119시민수상구조대」와 연계한 근무인력 근접 배치
- (2) 바닷가, 하천, 계곡, 갯벌 등 안전위험지역 및 위험구역(safety zone)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등 민간단체에서 읍·면·동사무에 신고하고 즉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 (3) 시민안전봉사자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피서지 중심의 안전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4) 물놀이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국민 안전지도 등을 강화한다.
 - ▶ 자치단체, 의용소방대, 지역 민간단체 등이 적극 협력하여 활동 하도록 한다.

3) 현장 지도관리관 지정·파견

(1) 주의보 발령시에는

- ▶ 시·도, 시·군·구 : 6급이상으로 지정·파견한다.
- ▶ 동일 지역에서 시·도는 5건 이상, 시·군·구는 2건 이상 사고 발생시 현장에 파견하여 T/F팀에 현장정보를 전달한다.
- ▶ 중앙 현장 지도관리관이 파견될 경우 현장 도착 전까지 중앙과 현장간 정보를 전달하여 준다.

(2) 경보 발령시에는

- ▶ 소방방재청 : 사무관급 이상으로 지정·파견한다.
- ▶ 동일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거나 중앙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고지역에 파견하여 지자체의 활동 상황 등을 중앙 T/F팀에 보고하도록 한다.

(3) 현지활동에 필요한 이동수단 및 통신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관리한다.

4) 헬기 등을 활용한 공중감시 활동 전개

(1) 각 자치단체별로 피서객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다발 지역 및 시간대 등을 파악 후, 동 시간대에 소방부서, 군부대와 협조, 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2) 민간단체인 한국활공협회 등과 협조, 모터부착 행글라이더를 활용한 공중계도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3) 피서객 인파가 집중되는 해수욕장 등 애드벌룬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5)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순회 경고방송 실시

- (1) 각 자치단체별로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에 가두방송 차량을 활용한 순찰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한 주지사향 및 경고에 대한 홍보 방송을 실시한다.
- (2) 각 마을에 설치된 앰프를 활용하여 물놀이 다발 시간대에 자동 녹음경고 방송이나 민방위 메가폰을 이용한 순회 경고방송을 실시한다.

2.3.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1)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해수면 122)로 신속히 신고한다.
- (2)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다.
- (3)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하도록 한다.
- (4)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 곤란이므로 인공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비상시 대응대책 단계별 조치사항

| 단 계 | 조 치 사 항 | 임 무 |
|------------------|-------------------------|---|
| 물놀이 사고 정보 발령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비상체제기간 설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상황실 운영체제 구축 - 시·도: 해당부서 과장 외 2명 - 시·군·구: 해당부서과장 외 1명 |
| |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인력 및 장비 확보, 민·군·관 비상연락 체계 사전 구축 등 |
| | 안전계도 방송 및 각종 홍보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안전봉사자 및 민간단체 합동 피서지 중심의 안전한 물놀이 캠페인 전개로 국민 안전의식 고취 |
| 물놀이 사고 주의보 발령 | 특별 기동순찰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지역 사전파악, 지자체 활동상황 수시 모니터링 실시 위험경고판, 위험구역(safety zone) 등 안전관리 철저 안전계도 방송 및 홍보활동 |
| |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인력 및 장비 확보, 민·군·관 연계 근무인력 근접 배치 및 순찰 등 강화 |
| | 현장 지도관리관 지정·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시·군·구 6급 이상 지정·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지역에 사도 5건, 시·군·구 2건 이상 사고 발생시 현장 파견, T/F팀에 현장정보 전달 |
| | 안전계도 방송 및 각종 홍보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대국민 안전지도·계도 및 홍보 강화 |
| 물놀이 사고 경보 발령 | 특별 기동순찰반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지역 사전파악, 지자체 활동상황 수시 모니터링 실시 위험경고판, 위험구역(safety zone) 등 안전관리 철저 안전계도 방송 및 홍보활동 |
| |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경찰, 자원봉사단체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인력 및 장비 확보, 민·군·관 연계 근무 인력 근접 배치 및 순찰 등 강화 |
| | 현장 지도관리관 지정·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방재청 : 사무관급 이상으로 지정·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 빈발 또는 중앙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 | 헬기 등을 활용한 공중감시 활동 전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안전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대국민 안전지도·계도 및 홍보 강화 |
| | 위험구역, 취약구역 순회 경고방송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부서, 군부대 협조 및 애드벌론 등을 활용한 공중 홍보활동 전개 |



물놀이 안전관리 세부요령

Ⅲ. 물놀이 안전관리 세부요령

3.1 시설별 안전관리 요령

3.1.1 해수욕장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시범해수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조직 또는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수욕장 ※해수욕장 청결관리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지역번영회 협조) | |
| 일반해수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해수욕장 ※해수욕장 청결관리 : 해수욕장 운영주체(기초지방자치단체 협조) | |
| 마을해수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 ※해수욕장 청결관리 : 지역번영회 또는 어촌계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면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장소임에도 대부분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는 전체 물놀이 사고의 약 15%를 차지
 - 안전의식 부족의 예 : 밀물시간 사전 미숙지로 인한 고립, 음주후 수영, 비유영구역에서의 수영

- ▶ 조류나 파도에 휩쓸려 물놀이 안전선 밖으로 표류

- ▶ 하루중 기온이 가장 급상승하는 오후시간대인 12:00~18:00에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68%) 발생
- ▶ 가족, 친구 등 단체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영 실력 과시 중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

(2) 대응책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안전계도
 - 밀물시간 인터넷 pop-up 등 게시, 음주 후 수영 금지, 안전 구역내 유영 등
- ▶ 물놀이 안전사고 집중발생 시간에 중점홍보 및 순찰 실시
- ▶ 수영실력 과시 등 무모한 행위 제지
- ▶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연락처 게시판 게시

물놀이 안전불감증 여전

[강원일보 2006-07-11 00:03]

물놀이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19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해 모두 709명이 구조됐다.

원인별로는 수영금지 장소에 입수하거나 준비 운동부족 등 안전수칙 불이행이 321명으로 45.3%를 차지했고 수영미숙이 17.8%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집계에서 20대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수영실력 과신이나 음주가 익사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난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8월 30.9%, 7월 27.4%, 6월 13% 등 여름철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장소는 하천이 46.3%, 해수욕장 20.5%, 계곡 10% 순이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李相穆>자·moki@kwnews.co.kr>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시범해수욕장 | • 기초자치단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 수립 • 유영구역설치 ※ 마을해수욕장 : 관리주체가 유영구역 설정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설정 • 종합관리사무소 설치 ※ 지방자치단체, 경찰(해경·육경), 지역번영회 등 유관기관 합동 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운영가능 • 무선장비 구비 • 유영구역의 조망이 용이한 위치에 감시탑 설치 • 경찰(해경 포함), 보건소,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유기적 수상안전시스템 구축·운영 • 인명구조팀과 구조장비 구비, 운영 •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 기타 부대시설 관리(화장실, 식수대 등) |
| 일반해수욕장 | • 해수욕장 운영주체 | |
| 마을(간이)해수욕장 | •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가 자율적 관리 |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 방학, 휴가철 돌입 전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수난구조 대책위원회 운영 등 인명구조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유지 및 방법·치안활동 • 여름경찰서 운영 •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 인명구조 협조 • 응급환자 후송 • 방학, 휴가철 돌입 전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홍보활동 등 지원 | |

구조 · 사망 사고사례

□ 구조 사례

- '06. 8. 12 11:30분경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일가족 3명이 튜브놀이 중 4살 손자가 튜브를 놓치고 빠지자 구조하기 위해 가족 2명이 차례로 뛰어들어 탈진상태에서 고속제트보트 출동 구조
- '06. 8. 15 14:00경 전남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박 00(여, 18세)등 3남매가 고무보트를 타고 놀던 중 파도에 쓸려 해상으로 밀려가면서 보트가 뒤집혀 허우적대는 것을 인명 구조요원이 출동 구조

□ 사망 사고사례

- '06. 7. 5(수) 05:30분경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김00(남, 18세)등 친구 4명이 “야간 음주 후” 물놀이 중 1명 실종, 사체인양
- '06. 8. 17(목) 07:50분경 강원 우암 해수욕장에서 김00(남, 26세) 등 일행 4명은 기상불량으로 “입욕통제 중” 물놀이를 하다 1명 실종, 사체인양



물놀이 사고 주요원인

- ◆ 스스로의 수영실력 과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비 미흡
- ◆ 심야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
- '06년도 사망사고는 물 흐름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이 전체 42.8% 발생 -

음주후 물놀이 익사사고

□ 사망 사고사례

- 대학생들이 휴학 후 입대를 축하하기 위해 음주 후 장난삼아 바다에 떠민 뒤 구조하러 뛰어들었으나 파도에 휩쓸려 익사

□ 사망원인

- 술을 마시게 되면 장난기 발동하는데 모든 사고가 조그만 장난으로 시작하여 발생하게 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 호흡이 빠르고 혈압이 올라 방향감각 상실



물놀이 사고 예방법

- ◆ 술을 마시고는 어떠한 장난도 금지하여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기도 하여 큰사고를 입게 되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수영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지시킴
- ◆ 방학, 휴가철 돌입 전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일 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장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연락처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지역변영회 등과 협조체제 구축 (시범·일반·마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요원 상시 근무체제 유지◦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시설물, 건축물 배치, 관리운영계획 등)◦ 해수욕장 운영 배상책임보험 가입◦ 레저시설과 유영구역 구분관리◦ 유영구역 설정 (성인 가슴깊이 정도)◦ 유영구역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부표 및 경고판 설치◦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경우 만조·간조시간을 감안 유영구역 공지사항◦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경찰(해경), 지역변영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운영- 최상층(옥상) 백사장 조망전망대 설치◦ 감시탑의 설치 여부(100~200m이내 1개소)◦ 감시탑의 높이 3m(서해안의 경우 5m) 설치◦ 수상안전장비 확보기준 <table><tr><th>이용자별</th><th>인명구조선</th><th>구명보트</th><th>구명튜브</th></tr><tr><td>100만명</td><td>2~3대</td><td>30만명당 1대</td><td>감시탑에 비치</td></tr><tr><td>50만명</td><td>1~2대</td><td>30만명당 1대</td><td>감시탑에 비치</td></tr><tr><td>5만명</td><td>-</td><td>1~2대</td><td>감시탑에 비치</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선은 산소호흡기, 응급구조요원 등 인력, 장비 구비-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물놀이를 병행하므로 기구와의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선 등 부표 설치 철저◦ 많은 사람이 찾는 시간대(12:00~18:00)에는 유영구역 바깥에서 보트로 순회하는 등 다양한 해상안전감시 체제 유지◦ 안전요원(보조요원 포함) 감시탑에 상시 근무 체제 유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와 협의, 해수욕장별 근무 안전요원과 보조요원을 적정한 비율로 조정, 근무인원 구성※ 안전요원은 공인된 단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 이용자별 | 인명구조선 | 구명보트 | 구명튜브 | 100만명 | 2~3대 | 30만명당 1대 | 감시탑에 비치 | 50만명 | 1~2대 | 30만명당 1대 | 감시탑에 비치 | 5만명 | - | 1~2대 | 감시탑에 비치 | |
| 이용자별 | 인명구조선 | 구명보트 | 구명튜브 | | | | | | | | | | | | | | | |
| 100만명 | 2~3대 | 30만명당 1대 | 감시탑에 비치 | | | | | | | | | | | | | | | |
| 50만명 | 1~2대 | 30만명당 1대 | 감시탑에 비치 | | | | | | | | | | | | | | | |
| 5만명 | - | 1~2대 | 감시탑에 비치 | | | | | | | | | | | | | | | |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p>일 반 사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영가능 깃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 및 파고 등 해상 기후 등을 고려하여 유영 가능 여부 결정 및 홍보 ◦ 풍랑주의보 등 현지 기상 불량시 입욕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불량시와 야간 등에 해수욕장 입욕통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 기상특보 발효이전이라도 현지기상 감안 입욕통제 - 순찰활동 및 홍보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시간대 음주 수영예방 ◦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카드 작성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카드」 작성 비치로 사고발생시 관계기관 협력 등 신속대응 체제 구축 - 지역특성, 이용객현황, 기관별 인명구조 배치인력, 근무방법, 장비보유, 구조 대책등 사항 기재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비상연락체계도 작성비치 | |
| <p>수상레저 활동 구역 등</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 개인용 수상레저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운영 - 전년도 사고사례, 수상레저활동단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후 지정 - 해양경찰관서, 시·군·구 게시판 공고문 게시 및 금지구역 입·출구에 안내판 설치 <p>2) 수상레저 활동 완충구역(Safety zone)설정, 수영객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구역 경계선에 근접하여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활동하는 경우, 돌발적 침범 사고로부터 수영객 보호 <p>※ 해수욕장 금지구역 지정(예시)</p> <p>☞ 수영경계선 외측 약 10~20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 경계선까지 금지구역 지정·운영</p> | |

3.1.2 하 천(강)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하 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 | |
| 하 천 구 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등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
| 소 하 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 지정·고시 | |
| 소하천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 |
| 소하천부속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하천에서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멍조끼 등 구조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 ▶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 ▶ 음주수영 및 무리한 수영실력 과시 등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 ▶ 충분한 사전 운동없이 입수하여 심장 마비로 인한 사망

- ▶ 충분한 구조 지식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무리하게 구조하려다가 발생
- ▶ 폭우 후 강우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진 하천(강)에서 물놀이하다 급류에 휘말림
- ▶ 물놀이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구조장비 착용의 의무화 등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본인 스스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안전의식을 갖도록 홍보 철저

(2) 대응책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물놀이 전 충분한 사전 운동 실시, 음주수영 금지, 어린이는 물놀이시 보호자 동참 등
- ▶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필히 착용
- ▶ 불어난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릴 경우를 대비하여 하천횡단 밧줄 등을 설치(필요시)
- ▶ 물놀이 안전수칙, 위험지역 게시판 설치 및 위험구역 설정, 입수금지 등 관리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하 천 |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약구역 및 위험구역(safety zone) 설정 및 관리 • 물놀이 위험표지판 게시 및 수영금지 등 관리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 하 천 구 역 | | |
| 소 하 천 | | |
| 소하천구역 | | |
| 소하천부속물 | |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필할 것) • 물놀이 취약구역 및 위험구역(safety zone) 설정 및 관리 • 물놀이 위험표지판 게시 및 수영금지 등 관리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판 게시 및 홍보 • 하천 시설관리 및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 이용객 안전관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 등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유지 및 방법·치안활동 •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 인명구조 •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홍보활동 등 지원 | |

준설작업후 웅덩이 익사사고

□ 사망 사고사례

-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가뭄대책으로 파 놓은 웅덩이를 알지 못하고, 얇은 수심에서 놀다가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웅덩이에 빠져 익사

□ 사망원인

- 수영은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운동으로서 수영 교육의 부실이 원인

물놀이 사고 예방법

- ◆ 우리나라의 경우 수영금지구역은 많이 있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실정 - 수영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된 강이나, 하천, 바다 등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킴
- ◆ 수영을 금지시켜 익사를 막기 전에 수영이 가능한 지역을 집중 홍보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 익사사고를 사전에 방지
- ◆ 방학, 휴가철 돌입 전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바닥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 설치 - 사고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게 설치 -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게시 - 수온 및 수심변화 등에 대한 정보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및 물놀이 장소에 대한 정보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예상 지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취락구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시설이 있는 지역의 구조장비, 수상안전장비 확보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 수상레저부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 순찰 및 계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상시근무 또는 순찰 실시 ※ 상시근무 : 물놀이 예·경보 기간 동안 실시 여부 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도 및 예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지역 수영(입수)금지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빙 위험지역에 표시판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주변 공사장의 잔재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철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 하천 물놀이도 조심해야

[kbs 8시 뉴스2006-08-02 21:49]



<앵커>

하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의 수심이 고르지 않기 때문인데 갑자기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 소용돌이를 만나면 마치 바닷가 갯골에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영평천입니다.

오늘(2일) 오후 1시 20분 쯤, 근처 고등학교 학생 9명이 물놀이를 왔습니다.

10분 뒤 학생들이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가운데 바위 근처에 갔을 때 17살 김 모 군 등 3명이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김 군을 건져냈지만 나머지 2명은 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천 바닥이 갑자기 낮아진 데다 물살이 세서 급류에 휘말린 것입니다.

두 학생은 100여 m 떨어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돈인/경기 포천소방서 : 물이 탁해 알아 보이지만 깊이는 약 3~4m 정도로 깊습니다.]

이 곳에선 지난달 30일에도 30대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강에선 어제 하루 5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올 여름에만 벌써 10명이 밀양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엔 얇고 잔잔해 보이지만 바닥 깊이와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 하천 물놀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승모 기자>

3.1.3 저 수 지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저 수 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수(流水)가 저장된 인공시설 풍부한 수량, 적절한 수온 등으로 물놀이시설 등 관광용지로서 활용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저수지에서의 사고는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조장비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 ▶ 음주수영 및 수영실력 과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 ▶ 수영금지 구역 및 위험구역에서의 물놀 이로 인한 안전사고
- ▶ 물에 빠진 사람을 무리해서 구하려다 인명사고

(2) 대응책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금지, 음주수영 금지 등
- ▶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필히 착용
-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및 계도, 홍보
 - 익수자 발생시 신속히 연락하면 인명피해 예방가능한 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물놀이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저 수 지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점검·정비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계도 • 물놀이 안전관리표지판 게시 • 안전홍보 및 계도, 방송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 시설관리 및 물놀이 안전기간동안 이용객 안전관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인명구조 협조 | |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점검·정비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계도 물놀이 안전관리표지판 게시 안전홍보 및 계도, 방송 안전사고 처리 체계도 수립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홍보활동 등 지원 | |

저수지 등 익사사고

□ 사망 사고사례

- 하천, 저수지 등은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의 하나 하교길에 친구들끼리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깊어진 수심에 당황하여 전신에 힘이 들어가면서 경직되어 사고 발생. 친구를 구하려다 동반 익사사고

□ 사망원인

- 물놀이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수영
- 안전수칙 미준수 및 수상안전 교육의 부실



물놀이 사고 예방법

- ◆ 학교에서 수영교육을 전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 ◆ 또한,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을 심도있게 실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구별 할 줄 알도록 계도
- ◆ 방학, 휴가철 돌입 전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Safety zone) 및 예상가능 위험구역의 설정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 - 수영금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게시 - 수온 및 수심변화 등의 정보안내 및 주의사항 알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 물놀이 위험구역 및 물놀이에 적합한 장소에 대한 정보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 지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약지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상태 양호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구조장비 및 수상안전장비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 수상레저 부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순찰 및 계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상시근무 또는 순찰 실시 ※ 상시근무 : 물놀이 예·경보 기간 동안 실시 여부 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도 및 예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위험지역 수영(입수)금지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3.1.4 산간계곡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래프팅 등 수상레저활동 가능지역 | • 래프팅과 같이 단체가 즐기는 수상레포츠가 가능한 장소 | |
| 숙박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지역 | • 여름철 캠프 또는 야유회 장소로 캠핑 및 숙박 등을 통한 물놀이 시설과 함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가능한 장소 | |
| 기 타 계 곡 | • 흔히 골짜기라 불리는 좁고 길게 움푹 들어간 지형으로 물살이 세고 일정한 깊이(어른 무릎 이상)가 있는 곳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하여 급류에 휩쓸려 안전 사고 발생
- ▶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계곡 물에 고립, 무방비 상태로 입수하여 안전사고 발생
- ▶ 단체 모임 분위기에 취해 음주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 ▶ 어린이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미착용 등 보호자의 관심 소홀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2) 대응책

-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산간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인명 구조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 최소화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금지, 음주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 등

- ▶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필히 착용
-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및 계도, 홍보
 - 익수자 발생시 신속히 연락하면 인명피해 예방 가능한 체계구축
 -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물놀이 피서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래프팅 등 수상레저활동 가능 지역 | 지방자치단체 민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상 문제점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 •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
| 숙박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 민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취약구역에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물놀이 위험표지판 게시 • 순찰, 안전홍보 및 계도, 방송 |
| 기 타 계 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취약구역에 홍보 및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물놀이 위험표지판 게시 • 순찰, 안전홍보 및 계도, 방송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 |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인명구조 협조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 인명구조 •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계도·홍보 활동 등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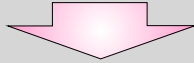
흐르는 물에서 익사사고

□ 사망 사고사례

- 유치원 등 야외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에 흐르는 물가에서 구멍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 실종되어 사망

□ 사망원인

- 유치원 인솔교사의 주의 부족 및 어린이 안전교육 소홀



물놀이 사고 예방법

- ◆ 유치원생 등 어린이가 하천 등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구멍조끼 등을 착용토록 법제화
- ◆ 물놀이 시설과 교육기관이 연계한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Safety zone)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등 물놀이 사고 우려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 - 수온 및 수심변화 등 안내 정보 및 주의사항 알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및 물놀이 장소에 대한 정보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 취약구역 등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약구역에 간이 구명장비(구명환, 구명줄 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 구명장비 사용법 안내 | |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구조장비 및 수상안전장비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 수상레저부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위험구역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순찰 및 계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상시근무 또는 순찰 실시 ※ 상시근무 : 물놀이 예경보 기간 동안 실시 여부 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곡 야영지 위험구역, 취락구역 등 사고빈발지역 안전계도 및 예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구역, 취락구역 등 사고위험지역 수영(입수)금지 및 제한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빙 위험지역에 안전표시판 설치 등으로 안전주의 사항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우량 경보장치 정상 작동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를 대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3.1.5 갯 별

1) 대상시설

| 구 분 | 관리주체 | 내 용 |
|-------|------------------------------|--|
| 갯 별 |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습지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습지”로서 반복적으로 만조시에는 잠기고 간조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 |
| 갯별체험장 |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마을회 등 위탁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에서의 생태관광, 생태학습, 레저스포츠, 생물 채취 등 갯벌을 생활영위가 아닌 형태로 이용하는 장소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갯벌에서의 놀이에 폭 빠져 만조시간을 미처 알지 못해 고립
- ▶ 만조시간을 알리는 방송계도와 홍보 미비
- ▶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내용 미 숙지
- ▶ 갯벌체험장에서 안내자가 동행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2) 대응책

- ▶ 만조시간 방송,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한 홍보
- ▶ 이용객의 만조시간 사전 숙지
- ▶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 교육 실시
- ▶ 갯벌체험장 안내인 교육 실시 및 의무강화
-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및 계도, 홍보
 - 사고 발생시 신속히 연락, 인명피해 최소화하도록 구조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물놀이 피서객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갯 별 |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 유도 |
| 갯벌체험장 |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청 민간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체험장 안전관리 갯벌체험장 운영계획서 작성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 마련 및 교육실시 행동지침 어기는 자에 대한 이용 거부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체험장 지정 및 관리 갯벌체험장 운영계획서 작성 및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별도 지정 관리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 마련, 교육실시 갯벌체험활동 협의회 구성 및 체험장 안내판 설치 |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발생시 수난구조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교육, 계도·홍보 활동 등 지원 | |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게시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을 안전하게 갯벌체험을 즐기는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안전수칙 등을 게시 - 갯벌체험장 안내판 설치 - 갯벌 안전수칙 게시판 게시 - 만조시간 등을 알리는 게시판, 인터넷게시 및 방송실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Safety zone), 취락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 및 취락구역 등 사고 우려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 - 주의할 사항 등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계도 및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조시간 등을 알리기 위한 안내방송 시설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취락지역에 간이 구명장비(구명환, 구명줄 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 구명장비 사용법 안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활동에 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장 안내인 채용, 피서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유도 -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을 피서객 대상으로 교육 실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장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체험활동에 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 갯벌체험장에 당초 계획과 같이 단위면적당(1ha) 적정인원 유치 - 당초 계획서와 동일적용 (갯벌체험장 이용대상, 기간, 시간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 예상가능 취락구역 등의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순찰 및 계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상시근무 또는 순찰 실시 ※ 상시근무 : 물놀이 예경보 기간 동안 실시 여부 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중고생 갯골 익사사고 인솔자 영장

[2006-08-03 12:01]



교회 수련회에 참가했던 중·고생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솔자 37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갯벌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장구도 준비하지 않은 채 수영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모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18살 김모 양 등 중·고교생 4명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모 청소년수련원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갯벌 웅덩이인 일명 '갯골'에 빠져 숨졌습니다.

3.1.6 유 원 지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 등 자연시설과 어우러진 유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
| 시설이 설치된 유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등 기계 조작되는 유흥시설 • 수영장·보트놀이장등 각종 운동시설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놀이기구(미끄럼틀)가 과도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고
- ▶ 음주수영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익사사고
- ▶ 보호자의 관심 소홀로 인한 어린이 익사사고
- ▶ 자연상태 유원지의 경우, 일반 하천, 계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비슷

(2) 대응책

- ▶ 교육된 안전요원과 감시요원 배치 및 운영
- ▶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수영금지, 음주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 등
 - 어린이 물놀이기 보호자 반드시 동행
 - 위험내용 및 주의사항 게시
- ▶ 수상레저시설 이용시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 필히 착용
-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및 계도, 홍보
 - 익수자 발생시 신속히 연락하면 인명사고 예방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물놀이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 등 자연시설과 어우러진 유원지 | 지방자치단체 민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이용금지 등 관리 조치 · 유원지 주변의 청결관리 · 물놀이 안전수칙 등 게시 및 홍보, 계도 ·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이용금지 등 관리 조치 · 유원지 주변의 청결관리 · 안전요원 배치 및 지속적 관찰, 홍보 계도 |
| 시설이 설치된 유원지 | 지방자치단체 민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한 사전 이용금지 등 관리 조치 · 유원지 주변의 청결관리 · 물놀이 안전수칙 등의 게시, 홍보 및 계도 · 물놀이 장소내 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 철저 · 안전요원 배치 및 지속적 관찰, 홍보 계도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안전점검 등의 시설관리·감독 •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 이용객 안전관리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유지 및 방법·치안활동 •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 인명구조 •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교육, 계도·홍보 활동 등 지원 | |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위험구역(Safety zone), 예상가능 취락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표지판은 눈에 띄는 곳에 설치 - 수영금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 게시 - 감시구역 범위 설정 및 적정성 - 수온 및 수심이 일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안내 등 주의사항 알림 ◦ 물놀이 위험구역, 예상가능 취락구역 및 물놀이 장소에 대한 정보 홍보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위험구역(Safety zone), 예상가능 취락구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장비(구명환, 구명줄 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 구명장비 사용법 안내 ◦ 수상레저시설이 있는 지역 구조장비 등 수상안전장비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준수 ◦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락구역에 대해 순찰 및 계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상시근무 또는 순찰 실시 ※ 상시근무 : 물놀이 예·경보 기간 동안 실시 여부 결정 ◦ 사고빈발지역 안전계도 및 예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구역 수영(입수)금지 및 취락구역 등 사고우려지역에 수영제한 등 조치 ◦ 다이빙 금지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안전표시판 설치 및 안전주의 사항 게시 ◦ 자동우량 경보장치 정상 작동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 휩쓸리는 경우를 대비 ◦ 물놀이 놀이시설 등 안전 관리실태 사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수상레저부분 |

3.1.7 수 영 장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수 영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설비한 장소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이용객의 안전불감증
- ▶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 ▶ 수영장 내 미끄럼틀에 많은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려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2) 대응책

- ▶ 교육된 안전요원과 감시요원 배치 및 운영
 - 물놀이 사고 발생시 현장 안전요원 등의 응급구조·구급 시행 가능
- ▶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의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
- ▶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물놀이 안전 기본상식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 어린이는 물놀이시 보호자 반드시 동행
 - 위험내용 및 주의사항 게시
-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체계 구축, 홍보 및 계도
 - 익수자 발생시 신속히 연락,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구조·구급체계 구축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수 영 장 | 지방자치단체 민간관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시설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 수영장 주변의 청결관리 • 물놀이 안전수칙 등 게시 및 홍보, 계도 • 안전요원 배치 및 지속적 관찰, 홍보 계도 • 안전요원 교육 및 훈련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 이용객 안전관리 • 주기적인 시설점검 등의 시설관리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 인명구조 •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계도·홍보 활동 등 지원 | |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게시 및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구역 등 사고위험지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구역 등 물놀이 사고우려지역에 간이 구명장비(구명환, 구명줄 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 구명장비 사용법 안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 또는 감시요원을 배치 및 교육,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에 대한 각종 교육 실시여부 및 적정배치로 상부감지 가능 - 안전요원 수종조난 구조 및 교육 실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상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등의 고정 - 낮은 천정 및 계단 등에 충격보호대 설치 - 전기결속점 및 스위치 등의 전기설비 방수상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놀이시설 등 안전 및 관리실태 사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3.1.8 수상레저기구

1) 대상시설

| 구 분 | 설 명 | 비 고 |
|----------|---|---------------|
| 래 프 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타거나 유락(유락)행위를 하는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 |
| 수상레저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누, 워터슬레드, 카약,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 |
| 동력수상레저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스쿠터, 중 하나 | |

2) 사고원인 및 대응책

(1) 사고원인

- ▶ 래프팅 등 기구를 타고 즐기다가 전복되어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
- ▶ 지구 기후변화나 온난화 등에 의한 엘리뇨현상,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계곡 물에 고립, 무방비 상태로 입수하여 안전사고 발생
- ▶ 단체 모임 분위기에 취해 음주 및 안전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 ▶ 어린이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미착용 등 보호자의 관심 소홀

(2) 대응책

- ▶ 물놀이 안전수칙 및 기본상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음주후 수영금지, 어린이는 어른의 보호 하에 물놀이
- ▶ 물놀이 안전수칙 게시판에 사고시 연락처 등을 눈에 띄도록 게시
- ▶ 산간계곡 등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설 수시 점검

3)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1) 관리주체

| 구 분 | 관리주체 | 역 할 |
|-----------------|--|---|
| 래프팅 등 수상레저기구 |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지방재난안전 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안전교육실시 • 수상레저안전조종면허 교부, 취소(정지) •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점검 • 점검 결과 문제점 시정명령 이행 |

(2) 기관별 조치사항

| 기 관 명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안전관리점검 점검 결과 문제점 시정명령 이행 |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안전교육실시 수상레저안전조종면허 교부, 취소(정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인명구조 협조 | |
| 경 찰 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유지 및 방범·치안활동 인명구조 협조 | |
| 소 방 관 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배치 인명구조 응급환자 후송 | |
| 민 간 단 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안전관리, 구조구급, 응급환자 소생 및 안전 교육, 계도·홍보 활동 등 지원 | |

4) 안전관리요령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중 1인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소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비치 여부 (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승정원의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비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승정원의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를 제외)에는 그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 대신에 드로우백 (throw bag) 구비로 갈음 가능 | |

| 안 전 관 리 요 령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카·패러세일·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비치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 계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 탑승 정원이 4인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 및 상앗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도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구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그 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 배치 ※ 단,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 가이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급 상황 발생시 연락처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수자 등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게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놀이 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발생 긴급연락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 배치. 단,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 가이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 | |

3.2 물놀이 안전 행동요령

3.2.1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물가나 물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며,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먼저 숙지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 (2)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 하기
- (3)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에는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 곳에서 물놀이하기
- (4)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 (5) 하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하기
- (6) 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3.2.2 성인 물놀이 안전수칙

- (1) 배, 특히 작은 배를 탈 때는 물론 래프팅 등의 수상레저를 즐길 때도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할 것
- (2) 강이나 호수를 건너갈 때나 보트를 둘 이상이 타고 간다 하더라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수영실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물이 차고 깊은 곳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나 본인의 수영실력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것
- (3)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게 되면 날씨, 물, 배에서 보이는 물의 일정한 흐름 등에 대한 주변상황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 (4) 수영하기 가장 좋은 곳은 구조대원이 있고 수영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임
- (5)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놀이 구역 내의 수심변화가 심한 곳, 지형 변화나 부딪힐 수도 있는 바위 등의 위치 등 위험 유발요인을 잘 알아 둘 것
- ☞ 점프를 하거나 다이빙을 할 때는 깊이가 적어도 4m 정도는 되어야 한다.
- (6)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은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여름이라도 강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 것
- (7) 수영할 줄 모르면 가르쳐 주거나 보호해줄 사람과 반드시 동행하여 물에 들어가야 하며 혼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 것
- (8)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수영이 능숙하다면 직접 구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요원에게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10대가 물에 빠져 죽는 이유 중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명심 할 것
- (9) 사람이 물에 빠졌거나 숨이 멎었을 때 쓸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배워두고, 간단한 응급구조기술도 가능하면 배워 둘 것
- ☞ 심폐소생술은 동네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를 찾아가서 배울 수가 있으며, 학교 등에 배울 수 있는 시간 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10)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능력 부족으로 동반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나이 많은 집안 어른들께 물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게 하지 말 것
- (11) 물놀이 갈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챙기고 가능하면 여분의 배터리도 챙겨 갈 것

3.2.3 어린이 물놀이 안전수칙

어린이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어린이는 물론,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도 알아 두어야 한다.

- (1) 물놀이 전에 수영기술을 몸에 익혀두고 안전한 곳에서 실력을 시험하여 자신의 실력을 확인 해 둘 것
- (2)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 (3) 계곡이나 강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얇은 물에서 어른이 보이도록 놀 것
- (4) 물의 상태(물살, 온도, 깊이, 물속에 있는 바위 등)에 따라 수영 실력이나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할 것
- (5) 배를 탈 때, 특히 작은 배를 탈 때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주변 여건을 파악해 둘 것
- (6) 지켜보는 사람 없을 때는 수영하면서 멀리 나가지 말 것
- (7) 찬물이나 물살이 빠른 물에서 수영할 때도 구명동의를 착용할 것
- (8) 학교나 교회, 절 따위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물놀이를 할 경우 혼자서 놀지 말고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놀도록 하고, 장기간 계속하여 물놀이를 지속하지 않도록 할 것
- (9) 물놀이 중에 보호자는 쉬는 시간이나 물놀이 중에도 혹시 안전 사고를 당하거나 없어진 어린이가 있는지를 체크할 것
- (10)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배를 몰 때에는, 술이나 약을 마시지 말 것
- (11) 보호자는 어린이가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할 것

음주 후 물놀이 사고 되풀이 하시겠습니까?

㊤ 매해 반복되는 음주 후 물놀이 사고



‘술을 마신 뒤 수영을 한다면 물에 들어갔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되거나 익사하는 등의 사고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계절 중에서도 계곡이나 강, 바다 등과 가장 가까워지게 되는 철이니만큼 물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귀한 생명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생사를 달리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지역에서 음주를 한 후에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적은 양의 술도 물 속에서는 치명적인 자살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수영 기술과는 무관하게 일단 술을 마셨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기능을 억제하는 술

반응력을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과 인체가 움직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력과 판단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후 물놀이는 반혼수 상태에서 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의 발병

특히 전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성질환·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팽창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부정맥, 심근경색 등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 추락사고 위험

음주는 뇌기능을 억제시키면서 판단력, 반응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 동작을 취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쳐 위험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추락사고에도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 미국의 각종 사고와 음주와의 연관성 보고 | |
|----------------------------------|--------|
| 전체 추락사고 중 음주에 의한 추락사고의 비율 | 17~53% |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일 때 사고 위험성 | 3배 |
|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5일 때 사고 위험성 | 10배 |
|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이상일 때 사고 위험성 | 60배 이상 |
|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음주와의 상관성 | 최고 70% |
|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음주와의 상관성 | 최고 63% |
| 물놀이, 수중 스포츠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음주와의 상관성 | 69% |
|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음주와의 연관성 | 83% |

쉽게 노출되는 저체온증

건강한 사람이라도 물놀이를 하다 보면 한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응 정도가 경감됩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체열이 금방 소실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음주자일수록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호흡 곤란이 오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뇌기능 저하까지 생기면 결국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 물놀이 이전에 먼저 하여야 할 것들

- ☞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
-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씩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



☺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
- ☞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



※ 어린이들을 위해

-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
-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물놀이 전 체크리스트



출발하기 전

1. 예정지의 날씨는?

☐ 맑음 ☐ 흐림 ☐ 비 ☐ 태풍 전

2. 안전장비와 구급약품은 준비하셨나요?

☐ 안전장비 ☐ 구급약품 ☐ 준비못함

3. 간단한 구조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셨나요?

☐ 구조법 ☐ 응급처치법 ☐ 준비못함

물에 들어가기 전

1. 물의 깊이와 온도, 물흐름의 빠르기를 확인하셨나요?

예

아니오

2. 공기 튜브에 바람이 새지는 않나요?

예

아니오

3. 유사시에 필요한 물에 뜨는 기구는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4. 어린이는 물이 배꼽 이상 차지 않나요?

예

아니오

5. 햇빛차단크림을 바르셨나요?

예

아니오

6.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모를 쓰셨나요?

예

아니오

7. 준비운동을 하셨나요?

예

아니오

8. 구조요원과 의무실을 확인하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셨나요?

예

아니오

이럴 땐 물놀이를 하면 안돼요

1. 물이 오염되어 있나요?

예

아니오

2. 햇볕이 너무 뜨거운가요?

예

아니오

3. 방금 식사를 마쳤거나 술을 드셨나요?

예

아니오

4. 열이 나거나 피곤한가요?

예

아니오

5.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 순서로 몸에 물을 적셔야 해요.

강이나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돼요.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어서는 안돼요.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려 흔들어야 해요.

어린이들은 물 근처에서 혼자 놀아서는 안돼요.

어린이들은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혼자 따라가서 건지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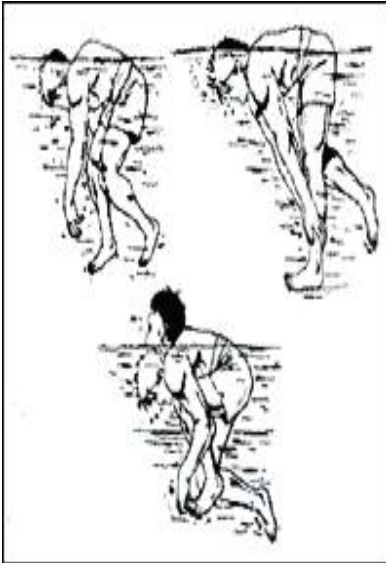
3.2.4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구급법

- 옷을 입은 채 빠졌을 때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어야 한다.
- 큰 소리를 쳐서 인근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성인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 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로프, 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소(자) 또는 인근 소방관서(119), 해양수상구조대(122)에 신속히 신고한다.
- 건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울 때, 얼굴·피부가 창백해 질 때, 손발이 저리고 마비될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고 옷이나 타월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한다.

(1) 경련이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탈수, 근육의 피로, 불충분한 운동 등에 의해 일어나며, 손가락, 발가락, 다리에 일어난다. 이 경우 수영법을 변경하면 경련이 풀리는데 만약 안 풀릴 경우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펴는 일이다. 이때에 당황해서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도리어 익사 위험이 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평상시에 숙지해 두고 물놀이 중에 경련이 났을 때 활용하도록 한다.



- ① 먼저 몸을 둥글게 모으고 물위에 뜨도록 한다.
- ② 다음에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당긴다. 한동안 계속하여 격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린다.
- ③ 한번 쥐가 난 곳은 버릇이 되어 다시 쥐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증이 가셨을 때 그 곳을 잘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육지로 향한다.

- ④ 육지에 오른 다음에도 발을 뺀어 장단지의근육을 충분히 마사지해 준다.
- ⑤ 더운물이 있으면 타월에 적셔서 장판지에 감고 습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조류가 발에 엉켰을 경우

- ① 조류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수영을 해야 한다.
- ② 당황하거나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조류를 따라서 비스듬히 헤엄쳐 나가 자유롭게 해변을 향해 헤엄쳐야 한다.

(3) 옷을 이용하여 물에 뜨게 하는 방법

- ① 옷이 가늘고 성글게 짜여 진 옷감으로 만들어진 의복 중에서 셔츠나 바지 등은 물에 젖었을 때 공기를 넣을 수 있다.
- ② 셔츠의 밑자락은 허리 부분을 묶어야 하며 불어넣은 공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셔츠의 칼라를 단단히 움켜잡을 필요가 있다.

(4) 응급구조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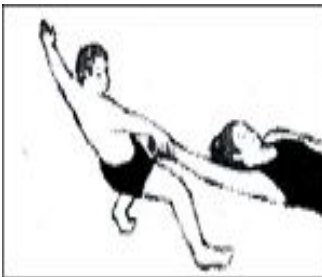
- ① 축 늘어져 있을 때는 머리 쪽에서 접근해도 좋지만 의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뒤쪽으로부터 접근한다.



→ 엎어져 있는 상태이면 반듯하게.

→ 머리를 팔로 끌어 안 듯이 하고 헤엄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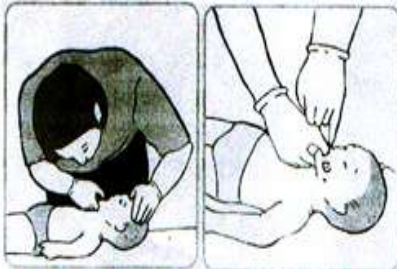
- ② 손목 끌기는 앞 다가가기 이후에 주로 사용된다.
- ③ 준비서기를 유지하며 구조원의 오른(왼)손으로 구조대상자의 오른(왼) 손목을 잡는다.
- ④ 얼굴이 물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구조대상자를 회전시켜야 한다. 이때는 구조대상자를 1미터이상 끌다가 잡고 있는 손을 물밑으로 큰 반원을 그리듯 하며 돌려 대상자의 얼굴이 위로 나오도록 한다.



3.2.5 응급구호법

물에 빠진 사람의 구급처치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다. 신속하게 인공 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해 주어야 하며, 찬물에 빠진 경우는 사고 발생 후 1시간까지도 뇌의 기능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 더욱 희망을 갖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1) 인공호흡법



- ① 아이를 똑바로 눕힌다.
- ② 목안을 청결하게 씻어준다.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입을 강제로 벌려 안에 있는 액체, 토사물, 점액 또는 이물질 등을 손가락으로 끌어낸다.
- ③ 머리를 다시 똑바로 놓고 뒤로 약간 젖혀지게 한다.
가능한 한 목이 펴지게 하며, 이런 자세는 저절로 혀가 기도를 가로막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
- ④ 아이의 입술을 막은 채로 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어 준다. 가슴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바람을 불어넣은 다음 잠시 멈추어 공기를 토해 내게 하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아이의 경우는 입에다 입을 대고 하는 인공호흡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⑤ 위의 과정을 일분에 약 15~20회 정도 반복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너무 세게 바람을 불어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⑥ 만일 공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아이의 머리 위치를 재검토하고 몸을 돌린 다음 기도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 어깨뼈 사이를 약하게 몇 번 두드려 준다. 그리고 다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이의 입과 목에 손가락을 넣어 훑어 낸다. 결코 도중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아이의 가슴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이 보이면 응급 처치가 된 것이다.

(2) 심폐기능 회복법

이 방법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사용되며 철저하게 훈련 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 사고자 발견시의 행동요령

1 도움요청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다른 누군가가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2 구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선불리 물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순서는,

1. 물에 뜨는 물체를 던집니다.



2. 막대나 로프를 이용하여 끌어 당깁니다.



3. 거리가 멀다면 보트를 이용합니다.



3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구조하였을 때의 응급처치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더라도 알은 곳까지 도착하면 곧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자의 사망을 막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처치 중의 하나입니다.

※ 물을 빼기 위하여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자의 대부분은 물을 많이 흡인하지 않으며 흡인한 물은 신속히 폐를 통해 흡수되므로 물을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자의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사고자의 소생가능성이 작아집니다.

이후의 응급처치 요령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요령과 동일합니다.

만약을 위해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심폐소생술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6 구명동의 착용법

①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맞게 구명동의를 선택한다.

② 가슴조임줄을 풀어준다



③ 구명동의를 몸에 걸친다.



④ 가슴단추를 채운다.



⑤ 2인 1조로 가슴조임줄을 당겨준다.



⑥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뺀다.



⑦ 생명줄을 건다.



⑧ 구명동의 착용 완료





부

록

【부록1】

물놀이(갯벌체험) 관련 법규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수난구호법

법 제6조(수난구호업무의 관할)

제6조 (수난구호업무의 관할) ①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개정 1995.7.18>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수난구호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반환·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지급·징수 기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5.7.18>

③ 갯벌체험활동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정의)

1. “갯벌”이라 함은 습지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습지”로서 반복적으로 만조시에는 잠기고 간조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말한다.
2. “갯벌생태계”라 함은 갯벌의 생물군집이 생산자, 소비자 및 분해자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둘러싼 비생물적 환경으로 형성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갯벌체험활동”이라 함은 갯벌에서의 생태관광, 생탕그습, 레저스포츠, 생물채취 등 갯벌을 생활영위가 아닌 형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갯벌체험장”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갯벌체험활동을 목적으로 정한 장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로 공유수면에 정한 장소를 말한다.
5. “갯벌체험장 안내인”이라 함은 갯벌체험장에서 체험활동을 안내하는 자로서 습지보전법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 또는 갯벌체험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어촌계원,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5조(갯벌체험장의 지정)

- ①관리청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활동으로부터 갯벌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갯벌체험장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갯벌체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기초지자체장”이라 한다)은 연안특성, 수질 및 기상 조건 등 지역의 특수성과 “해수욕장의 평가대상 기준”을 감안하여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되, 국립고원 안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원과 협의는 거침

□ 해수욕장의 관리주체

- 시범해수욕장 : 기초지자체가 직접 행정조직 또는 별도조직으로 관리
- 일반해수욕장 : 기초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지역변영회·어촌계 및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
- 마을해수욕장 : 지역변영회·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 해수욕장의 구역 구분관리

-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백사장(해빈) 및 수역을 이용형태에 따라 유영구역과 수상 해양레포츠로 이용구역으로 구분 관리

□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

◦ 유영구역 표시

- 유영구역 수심은 성인 가슴깊이 정도, 암초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부표 또는 경고판 설치

◦ 종합관리사무소 설치

- 지자체·경찰(해경, 육경)·지역변영회 등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 설치
- 최상층에 백사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및 감시탑에 근무하는 안전요원과 긴밀히 교신할 수 있는 무선장비 구비

◦ 감시탑

-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을 감안 감시체제 유지(100~200m이내)
- ※ 감시탑 외에 순회 감시체제를 갖춘 경우 감시탑의 설치 간격과 설치 대수를 조정 운영
- 감시탑의 높이는 3m(서해안의 경우 5m) 내외로 제작

◦ 안전시설(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등)

| 이용자별 | 인명구조선 | 구명보트 | 구명튜브 |
|-------|-------|----------|---------|
| 100만명 | 2~3대 | 30만명당 1대 | 감시탑에 비치 |
| 50만명 | 1~2대 | " | " |
| 5만명 | - | 1~2대 | " |

- ※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은 안전요원(보조요원 포함)이 감시탑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체제 유지

【부록2】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소방방재청의 방재 및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사고”라 함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안전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사고 예보”라 함은 특정시기 등에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피해상황과 피해예방요령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주간 안전사고 예보”라 함은 주간단위로 일상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화재, 농기계, 붕괴 등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예보의 종류) 안전사고 예보는 정보, 주의보, 경보로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안전사고 정보 :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2. 안전사고 주의보 :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3. 안전사고 경보 :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4조 (예보 발령대상) ① 안전사고 예보의 발령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거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2.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
3. 최근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안전사고
4. 기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안전사고의 유형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보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이를 의결한다.

제5조 (예보 발령 절차) 안전사고 예보는 재난상황실 또는 해당 부서에서 발령여부를 분석·판단하여 요청한 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령한다. 다만, 주간 안전사고 예보의 발령은 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정보의 입수) ① 안전사고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1. 과거 3년간 구조·구급활동상황
2.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한 재난상황보고
3. 기타 예보 발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통계 및 분석자료

제7조 (예보 발령 방법) ① 발령된 안전사고 예보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발령하거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2.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
3.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인터넷 온라인 홍보
4. 휴대폰 재난문자방송(CBS), 재난재해방송(아카넷 TV),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제8조 (예보의 내용) 안전사고 예보 발령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령 배경
2. 과거 안전사고 사례 분석
3. 예방수칙
4.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 둔다.

-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대변인을 포함한 실·국의 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사고 예보발령을 행하는 경우 타부처 직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협의회 회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부회장은 재난상황실장, 간사는 재난상황실 소속직원이 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보 발령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예보 발령대상 안전사고의 유형, 범위에 관한 의결에 관한 사항
 3. 기타 안전사고 예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상황실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사전·사후 분석 등) 안전사고 예보의 피해저감 효과와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① 예보 발령 이후 안전사고 피해상황의 변동추이
 - ② 예보 발령 내용의 적절성
 - ③ 새로운 안전사고 또는 특이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피해분석
 - ④ 기타 예보제도 운영을 위하여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3】

피서객의 심리적 특성

① 군중 심리 특성

- 군중심리에는 정상군중심리 (Normal Crowd Psychology)와 이상군중심리(Abnormal Crowd Psychology)로 구분한다.
- 정상군중심리는 정부와 국민간의 신임·충성·단결 등과 관련이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 그러나 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는 이상군중심리도 발생하며 불만·항거·냉소·과괴 등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표 2.1 정상군중심리

| 구 분 | 특 성 | 비 고 |
|-------|---|-----|
| 호기심심리 | - 새로운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제 이해의 매개작용을 하는 심리 | |
| 동정심리 | - 통상적으로 타인의 슬픔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심리 | |
| 안전심리 | - 경쟁이 치열한 인류의 사회생활 중에 개인이 필수적으로 생활의 안전을 추구하는 심리 | |
| 수치심리 | -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심이 손상당할 때 나타나는 심리 | |
| 집체심리 | -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보편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집단을 구성하려는 심리 | |

표 2.2 이상군중심리

| 구 분 | 특 성 | 비 고 |
|---------|--|-----|
| 정서의 충동성 | - 정서적 평형작용의 붕괴로 개체의 강렬한 감정 아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격동상태 | |
| 추리의 단순성 | - 추리능력은 이지적 활동인 대뇌사고의 기능이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는 이지적 판단력이 지배하지만 군중 속에 있으면 정서적 충동에 크게 지배된다. 정서적 평형작용의 붕괴로 개체의 강렬한 감정이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격동상태 | |
| 욕망의 확장성 | - 사회적 평가와 제약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누적된 욕망이 증폭되면서 군중 속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을 강하게 표출하는 심리 | |
| 도덕의 모순성 | - 개인이 군중속에 있을 때 정서적 격동에 의하여 이지의 소멸과 욕망의 확장에 따라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도덕 관념이 모호해져서 모순된 가치체계를 동시에 갖게 되는 현상 | |

② 집단 심리 특성

- 소집단은 회원자격 규정이 있으며, 집단 및 공유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집단으로 그 수는 3~20인 정도의 가족·또래집단·놀이친구·직장동료·동아리 등이 이에 속한다.
- 소집단은 개인 행동의 장(場)으로 간주하며,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의존 관계나 그룹리더의 행동이 집단의 전체 심리를 좌우하는 경향이 크다.
 - 그러나 소집단에서도 이상군중심리가 발동되어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새치기, 공동시설에서의 문란한 행동이나 출입제한 구역에서 호기심에 의한 출입 등의 행동도 유발한다.

【부록4】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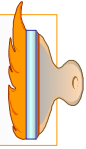
① 물놀이 활동시 지켜야 할 사항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수영하기에 알맞은 수온은 25~26℃ 정도이다.
물에 들어 갈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려온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 숨을 마신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러 빠져 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뿔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 어린이 물놀이 활동시 유의사항

- 어른들이 얇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다.

- 보호자의 활동 범위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뺀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한다.
-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한다.

2 상황별 대처요령

□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 체력의 소모가 적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한다.(긴장하면 그 자체로서 체력소모가 발생한다)
- 머리는 언제나 수면상에 내밀고 있어야 한다.
- 물을 먹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참기보다 마시는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경우도 있다.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하다.
-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버둥대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숨을 중지해 있으면 자연히 떠오른다.
-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곳은 깊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이나 하얀 파도가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얕다. 또 색이 검은 곳은 깊고, 맑은 곳은 얕다.
- 간조와 만조는 대개 6시간마다 바뀌므로, 조류변화 시간을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류가 변할 때는 언제나 흐름이나 파도,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 거센 파도가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대항하지 말고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를 향한다.

□ 수초에 감졌을 때

- 수초에 감졌을 때는 부드럽게 서서히 팔과 다리를 움직여 풀어야 하고, 만약 물 흐름이 있으면 흐름에 맡기고 잠깐만 조용히 기다리면 감긴 수초가 헐겁게 되므로 이때 털어 버리듯이 풀고 수상으로 나온다.
-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고 호흡하며, 서서히 부드럽게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꾸준히 헤엄쳐 나온다.

□ 수영 중 경련이 일어났을 때

- 경련은 물이 차거나 피로한 근육에 가장 일어나기 쉽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 중 그러한 상황에 항상 놓여 있으므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발가락과 손가락이고 대퇴 부위에서도 발생하며,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하였을 때에는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 경련이 일어나면 먼저 몸의 힘을 빼서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하고 (당황하여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 부위를 주무른다. 특히 위경련은 위급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구급 요청을 한다.

□ 물을 건널 때

하천이나 계곡 물을 건널 때는

-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급적 바닥을 끝듯이 이동하고, 시선은 건너편 강변 독을 바라보고 건너야 한다.
- 이동 방향에 돌이 있으면 가급적 피해서 간다.
-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수심을 재면서 이동한다.(지팡이를 약간 상류 쪽에 짚는다)
-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셀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한다.

무릎 이상의 급류를 건널 때는

- 건너편 하류 쪽으로 로프를 설치하고 한 사람씩 건넌다.
- 로프는 수면위로 설치한다. 로프가 없을 경우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거나 어깨를 지탱하고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넌다.

□ 물에 빠졌을 때

-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침수·고립 지역에서의 행동

침수지역에서의 행동은

- 부유물 등을 이용하며, 특히 배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로 중앙지점을 이용하고 가급적 침수 반대 방향이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고립지역에서의 행동은

-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을 삼가한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한다(옷이나 화염을 이용)
- 가능하다면 라디오나 방송을 청취하여 상황에 대처한다.

□ 보트를 탈 때

- 보트를 탈 때에는 도크나 강변에 나란히 대놓고 안정시킨 상태에서 선미 쪽에서 양손으로 뱃전을 잡고 용골위의 바닥으로 발을 천천히 옮긴다.
- 배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중심을 낮춘 자세로 자리를 이동한다.
- 보트에서 내릴 때는 탈 때와 반대로 하고 뒷발이 배를 강 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하고 잠시 휴식한 후 선미 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올려놓는다.
- 모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 할 때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또한 낙석 및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119(해상 122) 또는 1588-36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5】

“갯벌체험 이렇게 합니다”

① 필수적인 장비는

- 발에 맞는 장화
- 갯벌이 묻어도 얼룩이 남지 않는 긴팔 옷
- 여벌의 옷 / 창이 넓은 모자 / 면장갑 / 썬크림
- 관찰일지 / 망원경 / 나침반 / 시계 / 간단한 구급약 등

② 준수사항

- 갯벌체험의 가능 지역을 미리 알아보고, 체험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한다.
- 마을 공동 어장 또는 양식장이 있는 갯벌에서는 어장에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 수산물 어패류의 채집을 목적으로 한 갯벌체험은 자제하고, 어패류의 서식장소를 찾아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채집한 어패류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그 무게로 인해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③ 안전사고 대비 요령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출입하며,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 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갯골 주변에는 갯벌의 함수율이 높아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하지 않는다.
-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엮드려 기어 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할 경우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시 되도록 긴팔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썬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체험시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만조 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④ 바람직한 갯벌체험 요령

- 갯벌체험장으로 지정된 곳에 탐방로 표시가 있는 경우 표시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갯벌체험시 갯벌생물을 채집한 경우 한 달 뒤에 같은 장소에서 갯벌생물은 45% 감소하며, 관찰만 했을 경우에는 20% 감소한다. 갯벌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기만 해도 갯벌 표면에 살고 있는 어린 생물들은 전멸에 가까운 사망에 이른다.
- 갯벌체험은 모종삽이나 갈구리를 준비하기 보다는 카메라, 망원경, 관찰일지 등을 준비해 갯벌의 여러 유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을 관찰하며 자연생태계를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갯벌체험이 된다.
- 갯벌은 단순히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어 아무나 밟고 놀아도 되는 곳이 아니며, 그곳에 살고 있는 갯벌의 생물들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끊임없이 갯벌을 정화해 내며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갯벌의 주인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천한 갯벌체험현장(www.seantour.com)

◆ 조석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nori.go.kr-해양자료실-조석예보) 참조

수 상 레 포 츠 안 전 수 칙

수 상 안 전



-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합니다.
- 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기상 불량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하지 맙시다.
-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 장비점검을 생활화 합니다.
- 활동 전에 레저기구에 대한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비상연락 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다른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는 레저 활동을 하지 말고, 야간 레저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의 야간운행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원거리 수상 레저 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 후 합니다.
-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므로 진입하지 맙시다.
- 무면허 음주 조종은 하지 맙시다.
- 해양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① 수상스키 안전수칙

- 준비운동을 철저히 합니다.
- 안전 수신호를 반드시 숙지합니다.
- 스키어와 드라이버가 잘 알고 있는 장소에서만 탑니다.
-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이 타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 장비는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전에는 고장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격자가 운전하는 보트만 이용합니다.
- 보트의 힘은 견인줄에 집중되므로, 몸에 감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주나 약을 복용하고 타지 맙시다.
- 출발 전에 타는 사람과 운전자가 서로 신호를 정해둡시다
- 넘어질 때에는 핸들을 과감히 놓아버립니다.
-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물가와 평행으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 보트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트 뒷부분의 스크루-프로펠러를 조심하고, 움직이는 보트를 무리하게 잡지 맙시다.

② 래프팅 안전수칙



- 출발 전 코스, 안전수칙, 장비 등을 확인합니다.
- 래프팅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니다.
- 구명조끼와 헬멧은 꼭 착용하고, 벗거나 느슨하게 하지 맙시다.
- 튜브사이 또는 보트 안의 로프에는 발이나 손을 끼우지 맙시다.

- 급류에서 선두는 먼저 통과하고 난 후 대기상태에서 뒤에 오는 보트를 안전하게 유도합니다.
- 휴식 후 출발 시에는 인원과 장비를 다시 확인합니다.
- 보트와 보트 사이의 간격은 약 20~30미터를 유지합니다.
- 전복 시에는 보트 속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음주자, 정신지체자, 임산부, 정신병자, 심장질환자 등이 보트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 보트에는 일체의 음식물이나 주류를 신지 맙시다.
- 보트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행동은 하지 맙시다.
- 보트 속의 밧줄을 느슨하게 두지 맙시다.
- 초보자들끼리 급류를 타는 것은 위험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타야 합니다.

▷ 보트가 뒤집혔을 때 행동요령 ◁

1. 다리를 약간 구부린 채 발을 수면 가까이로 올려주세요.
2. 몸을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 하고 전방 상황을 살피면서 물의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몸을 맡깁니다.
3. 특히, 전복되어 떠내려갈 때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거친 바위 등에 의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다리에 힘을 주지 맙시다.

③ 보트·카누타기 안전수칙

- 보트나 카누를 탈 때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멀리 나가기 전에는 그 지역의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 갑작스런 날씨 변화가 관측되면 즉시 물가로 피해야 합니다.
- 물을 출발하기 전에는 항상 언제·어디로 떠날 것인가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서핑 · 윈드서핑 안전수칙

-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합시다.
- 물의 상태와 날씨 조건을 확인합시다.
- 초보자들은 바람이 육지 쪽이나 육지와 평행으로 불 때 연습하고, 수시로 기상예보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 자신의 능력과 체력을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 윈드서핑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지 맙시다.
- 해수욕장이나 낚시터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구역은 피합시다.
- 포구나 양식·어장 근처는 피합시다.
- 불규칙한 파도가 형성되는 곳은 피합시다.
- 물속의 사정에 대해 모르는 곳은 피합시다.

⑤ 낚시 안전수칙



- 낚시배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합시다.
-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줍시다.
- 야간에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랜턴과 체온 보호용 담요를 준비합시다.
- 간·만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 기상변화를 알 수 있는 라디오를 준비합시다.
- 휴대폰 예비 배터리를 준비합시다.
-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지 맙시다.

【부록7】

DMB폰을 이용한 소방방재청 주요시책광고 계획

DBM폰을 이용한 소방방재청 주요시책광고 계획

| | | | | |
|---|--|-----|-----|---------------------|
| 광 고 문 안 | 여름철 휴가 및 물놀이 기간을 맞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계도·홍보하는 내용임 (붙임 참조) | | | |
| 표출희망기간 | 2008. . ~ . (00일) | | | |
| 표 출 방 법 | 문 자 | 그래픽 | 동영상 | 기 타 |
| | ○ | | | TV화면 하단 스크롤자막 표출 |
| <p>위와 같이 우리청 주요시책광고(안)을 DMB폰에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년 월 일</p> | | | | |

DMB폰을 이용한 TV화면 자막내용

DMB폰을 이용한 TV화면 자막내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합시다.

▷ 현재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위험 경보가 발령중입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우리 모두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익사(익수)사고를 예방합시다.

▷ 등산, 낚시, 피서지 등에서 위험발생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물놀이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119구조대·경찰·
행락지 관리사무소 등에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시다.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표출 내용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표출 내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 ▷ 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익사(익수) 사고를 예방합니다.
- ▷ 등산, 낚시, 피서지 등에서 위험발생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합니다.

※ 물놀이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119구조대·경찰·
행락지 관리사무소 등에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표출요청기간 : 2008. 7. 1 ~ 8. 31(2개월간)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지(예시)



당부말씀

- ▶ 저수지나 용·배수로에서 수영 및 물놀이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하지 맙시다.
- ▶ 저수지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하지 맙시다.
- ▶ 한국농촌공사 시설물은 고압의 전류를 사용하는 곳이니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 ▶ 여름철 붕괴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한국농촌공사 00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 000 - 0000)

관 리 기 관 명

반상회보지 홍보문 게재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 | |
|--|--|-----|
| 여름철 물놀이 전 안전점검 사항 | | |
| 출발하기 전 | | |
| 1.예정지의 날씨는? | <input type="checkbox"/> 맑음 <input type="checkbox"/> 흐림 <input type="checkbox"/> 비 <input type="checkbox"/> 태풍 전 | |
| 2.안전장비와 구급약품은 준비하셨나요? | <input type="checkbox"/> 안전장비 <input type="checkbox"/> 구급약품 <input type="checkbox"/> 준비못함 | |
| 3.간단한 구조법과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셨나요? | <input type="checkbox"/> 구조법 <input type="checkbox"/> 응급처치법 <input type="checkbox"/> 준비못함 | |
| 물에 들어가기 전 | | |
| 1.물의 깊이와 온도, 빠르기를 확인하셨나요? | 예 | 아니오 |
| 2.유사시 필요한 고무 튜브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 예 | 아니오 |
| 3.공기튜브에서 바람이 새지는 않나요? | 예 | 아니오 |
| 4.초보자의 경우 물이 허리 이상 차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예 | 아니오 |
| 5.햇빛 차단 크림을 바르셨나요? | 예 | 아니오 |
| 6.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모를 쓰셨나요? | 예 | 아니오 |
| 7.충분한 준비운동은 하셨나요? | 예 | 아니오 |
| 8.구조요원과 의무실을 확인하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셨나요? | 예 | 아니오 |
| 이럴 때 물놀이 하면 안돼요 | | |
| 1.물이 오염되어 있나요? | 예 | 아니오 |
| 2.햇볕이 너무 뜨거운가요? | 예 | 아니오 |
| 3.방금 식사를 마쳤거나 술을 드셨나요? | 예 | 아니오 |
| 4.기상상태가 물놀이 하기에 적절한가요? | 예 | 아니오 |
| 5.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 → 다리 → 얼굴 → 가슴 순서로 몸에 물을 적셔야 해요. ▷ 강이나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해서는 안돼요.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어서는 안돼요. ▷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요.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려 흔들어야 해요. ▷ 어린이들은 물 근처에서 혼자 놀아서는 안돼요.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직접 구조하려는 무모함보다는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간접구조를 합니다. ▷ 어린이들은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혼자 따라가서 건지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 | |
|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 |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재난 사고 예방 활동과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생활속에 안전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방 방 재 청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수상스키 등 물놀이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모두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한국실현 (Safe Korea)』을 이룩합시다.

□ 물놀이 안전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합시다.
- 수영은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맙시다.
- 뱃놀이 할 때는 구명 자켓을 반드시 착용하고, 선내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 껌, 음식 등을 먹으며 수영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합시다.
- 계곡·하천을 건널 때는 원만한 지형을 이용, **상류에서 하류**로 건넌다.
-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항상 부모가 주위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이런 증상일 때는 휴식을 취합시다.** ☜

- ① 건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②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 질 때
- ③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 질 때 ④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상이 올 때

□ 여름철 등산·낚시·야영시에는 기상변화 등 돌발사태에 미리 대비를

-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합니다.
- **호우, 태풍**이 올 경우
 - 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건너지 맙시다.
 - **야영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소지품이나 물건에 미련을 버리고 신속히 몸만 **대피**합니다.
 - **낚시 중**에는 주변상황 변화에 무관심하기 쉬우니 혼자 하지 말고, 유사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사전에 알아둡시다.
- 행락지 **안내소** 등의 안내방송 및 계도 활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 래프팅·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만 사용합니다.
- 구명동의·헬멧·구명부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또는 비치합니다.
- 음주상태의 이용은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 기상악화시에는 이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비상사태 발생시

- 119 구조대·경찰 등 **안전요원**, 행락지 관리사무소 등에 긴급히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해수욕장·유원지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나 관리사무소 (위치·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둡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중(365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연락 하실 곳

(TEL : 해당 시군구 상황실 및 재난관리부서)

물 놀이 안전 사고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22269 판결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실을 인정한 사례

피고 양양군은 해수욕장 및 부속주차장을 개설한 후 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양양군의 직원을 파견하여 해수욕장을 유지·관리 하였음. 사고 당일 태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어 해수욕장 담당직원들은 수영금지 결정을 내려둠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 해수욕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입장을 제한하고 이미 입장한 피서객들에 대해서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 해수욕장 여러 곳에 설치된 망루대마다 감시원을 상주하게 하여 바닷물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고,
- 망루대 및 해수욕장 곳곳에 구조장비를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 수상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제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감독함으로써 물에 빠진 해수욕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하루 동안 해수욕장에 주차차량 4,604대를 주차하게 하고, 48,135명이나 되는 많은 피서객을 입장시켰으며,
- 입장한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의 긴 해변에 넓게 흩어져 수백 명이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 가까이 서 있고 위 망인의 일행을 비롯한 일부의 피서객들은 무릎 또는 허리 깊이 정도의 물 속까지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데도

- 위 해수욕장의 담당 직원들은 간간이 수영금지 방송만 내보내고 한 두명의 수상안전요원이 이따금 지나가면서 바닷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주의만 주는 등 형식적인 통제를 하는 데 그쳤을 뿐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지는 아니하였고,
-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사고를 당한 직후 그 친구들이 가까운 망루대로 뛰어갔으나 해수욕장의 망루대 중 제3망루대를 제외한 다른 망루대에는 감시원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으며
- 구명환,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도 없었고, 그 후 제3망루대의 감시원이 사고를 발견함과 동시에 위 망인 일행의 신고를 받고 사고가 난지 약 10분 후에야 구조장비를 갖춘 수상안전요원 4, 5명을 보내어 그 중 1명이 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고무튜브를 가지고 헤엄쳐 들어갔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에 실패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해수욕장을 유지·관리하는 피고 양양군의 담당 직원 및 수상안전요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854 판결

지자체에서 개설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자체 과실을 인정한 사례

피고 명주군은 옥계해수욕장을 개설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관리해 왔는데,

- 명주군의 해수욕장 담당직원은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3인만을 배치하고 해수욕장 중앙에 관망대 1곳만을 설치하였을 뿐,
- 구명대, 로프, 구명의 등 구명장비는 행정봉사실 구석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형식상 갖다 놓고 그 밖에 구조장비는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 사고당시 높은 파도가 일자 수영금지방송만 하였을 뿐, 배치된 수상 안전요원은 물속에 들어가려 하는 피서객들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자리를 떠나 있어,

- 사고가 발생한 직후 망인의 친구들이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무인구조장비를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안에서 40m 떨어진 행정봉사실 및 임시파출소로 달려갔으나 그 곳에서도 쉽게 구조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마저 없어
- 다시 그 곳에서 약100m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뒤늦게 사고현장에 온 안전요원들 역시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그 동안 해상 50m 지점까지 떠내려가 허우적거리는 망인을 보고서도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하지 못함

따라서 이 사고는 피고 명주군의 해수욕장 관리 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함.

대법원 1997.12.22. 선고 92다3319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3.2.15.(938),577]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3206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13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20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37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창수

【피고, 상고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3. 선고 92나8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저수지의 바닥을 준설하던 중 그 준설한 부분의 하상을 고르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함이 없이 그 공사를 끝마친 사실, 위 저수지 내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운영당 일대에는 특히 여름철에는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왔고 판시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고 다만 수영안전지대의 외곽경계선임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하는 정도로 피서객의 행동을 제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와 같은 부표들이 훼손되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위 준설공사결과 부표가 설치된 부분의 저수지 바닥에 깊이 2 내지 3미터의 깊은 웅덩이가 여러 군데 파여져 있었으므로, 그 곳 운영당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산하 판시 화양동분소장인 소외 서승기로서는 저수지 내 출입 및 물놀이를 금지 시키든지 또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부표들을 제대로 보수함과 아울러 이를 보다 안전한 백사장 쪽으로 옮기고 또한 그 곳 저수지 바닥에 파여진 모든 웅덩이를 메우거나 하다못해 저수지 바닥에 깊은 웅덩이가 많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판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도 방책이나 웅덩이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표 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저수지 바닥의 웅덩이도 메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시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소외 망 한상록이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에서 피서차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웅덩이 한군데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위 서승기가 준설공사 이후 생긴 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 그외 부표보수, 위험표지판설치 등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720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8.1.(925),2124]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과실과 그들의 부모들이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의 비율을 합하여 60% 정도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6.21. 선고 66다730 판결, 1979.6.26. 선고 79다74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나58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전북 김제군 황산면 용마리 부락 인근농토에 대한 양수를 위하여 1974. 5.경부터 위 부락으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용마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그 부근에 있는 준용하천인 두월천이 연결되는 배수문 부근의 배수로는 폭이 약 22.9m, 만수위일 때의 수심이 약 1.6m 정도되어 여름철이면 위 양수장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이 위 배수로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위 배수로 수문 바로 옆에 설치된 시멘트벽이 약 40도 정도 경사를 이루어 비교적 가파르고 미끄러워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실족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수심이 깊어 물놀이중 수영미숙 등으로 익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부근에 철책이나 위험표지판, 경고문의 게시 등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영금지 경고의 게시판은 이 사건 이후에 설치되었다), 위 양수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인근부락에 사는 당시 각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인 소외 망 김용성과 그의 동생인 소외 망 김경아는 1990. 7.25. 15:30경 위 배수문이 있는 배수로부근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조합이 위 양수장의 배수로와 배수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름철이면 수영 등 물놀이를 위하여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문의 게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위 양수장의 배수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배수로시설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들 및 그들의 부모와 동생인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나아가 위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으로써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높이를 상회하는 위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망인들의 부모인 원고 김성수, 황운자로서도 나이 어린 위 망인들이 함부로 그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놀거나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함부로 수영 등 물놀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453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1.6.15,(898),1492]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회사 간척지 토석채취장 내의 물웅덩이에서 14세 남짓된 피해자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회사 간척지 토석채취장 내의 물웅덩이에서 14세 남짓된 피해자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원심판결에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제396조/ 나.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최병안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275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최인섭이 1989.8.14. 14: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2구 소재 피고 회사 간척지의 토석채취장내에 있는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웅덩이 주위에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이 사건 물웅덩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웅덩이 옆에 있는 용수로 주위에 50미터 간격으로 “수로 위험 접근금지”라는 경고판을 세워 일반인들이 위 용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망 최인섭의 사촌형제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반상회보 등에 서산 에이(A), 비(B)지구 간척사업구역 내에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많이 잠재해 있으므로 용수로 및 담수호에 접근하지 말도록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지도계몽을 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 직원이 수시로 그 일대를 순찰하는 사실, 위 망 최인섭은 이 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4세 8개월된 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 최의섭외 2인과 함께 위 용수로 주위에 세워진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인 위 용수로를 건너 피고 회사의 간척지내에 들어가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위 망 최인섭은 수영이 미숙한 까닭에 동생인 위 최의섭과 서로 몸을 끈으로 묶어 늘어 뜨린채 이 사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위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미처 밖으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회사가 위 용수로에만 경고판을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물웅덩이 주위에는 수영금지의 경고판이나 어린이들의 접근을 방지할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마을 주민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물웅덩이를 메우든가 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과 이 사건 물웅덩이는 이미 만들어진지 약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물웅덩이의 위험성은 인근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는 터에 위 망 최인섭 및 그 일행 등이 위 용수로에 접근금지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어 위 용수로와 위 간척지 내의 이 사건 물웅덩이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용수로를 건너가 이 사건 물웅덩이까지 들어간 잘못과 위 망 최인섭이 이 사건 물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자신의 수영능력이 미숙하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최의섭과 사이에

끈으로 몸을 묶고 이 사건 물웅덩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위 끈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경합하여 야기되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 회사와 위 망 최인섭의 과실을 비교교량할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한 피고 회사의 과실보다 위 망 최인섭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책임은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면책)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망 최인섭의 과실 중 첫째로, 위 망 최인섭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양시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여름방학이 되어 위 양잠리 2구에 있는 그의 사촌들 집에 놀러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위 망 최인섭 자신이 위 반사회보 등을 통한 지도계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록을 대조하여 보아도 이점에 대해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둘째로 위 간척지가 피고 회사 사유지라고 하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듯이 실제로는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위 망 최인섭이 피고 회사 사유지인 간척지내에 있는 이 사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으며, 셋째로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물웅덩이를 위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메우든가 그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든가 하지 않고 7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한 피고 회사의 과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 사건 물웅덩이까지 들어간 위 망 최인섭 및 그 일행들의 과실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 아래서 원심이 인정한 위 피고 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최인섭의 과실과를 비교교량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면책)할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취하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위반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88.9.20. 선고 86다166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88.11.1.(835),1307]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나. 보를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이 익사사고 지점에 수영금지의 경고판 및 출입금지철조망을 설치한 경우 통상의 위험방지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 보의 윗쪽 50센치미터 상거한 하상의 웅덩이이고 그곳에는 수영금지의 경고판이 있으며 또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면 그것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의 구역내가 아닌 그 상류 부분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26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진엽 외 2인

【피고, 상고인】

정읍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6.6.25. 선고 86나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1937년경부터 점유관리하여 오던 보가 1978년의 수해로 유실되자 동년 11.20.경부터 1979.3.20.경까지 사이에 위 보를 재설치하였고 위 보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년 2, 3회 이상 보 윗부분 하상의 토사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데 1985년도에는 5월 매 2회, 8월에 1회, 9월에 1회를 각 실시하였던 사실 위 토사제거작업은 보의 윗부분 하상 바닥을 깊이 약 1.5미터 폭 약 5미터 길이 약 30미터 가량 굴착하여 유수에 밀려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결과 보의 윗부분에 넓은 저류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사실, 위 저류부는 토사 제거작업 후에도 계속해서 유수에 밀려 쌓이는 토사에 의하여 그 깊이가 어떤 부분은 20 내지 78센치미터로 낮아지고 어떤 부분은 1.2 내지 1.5미터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수심이 일정하지 않게되어 그곳에서 물놀이 등을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위험성이 있는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그 웅덩이는 수영금지 구역으로서 수영금지 경고판 및 출입금지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곳은 정주시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이 몰래들어가 수영 기타 물놀이를 하는 일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의 피용자로서 위 웅덩이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조합의 관리계장 소외 김 종문으로서는 어린아이들이 물놀이 등을 하기 위하여 위 웅덩이에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출입금지 시설을 하거나 물놀이가 성행하는 여름철만이라도 고정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상되는 어린아이들의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위 보의 주변인 위 저류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 보로부터 50센치미터 윗부분에 있는 깊이 약 1.2미터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은 피고조합이 그 보를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는 그 보의 상류부분의 위험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영금지의 경고판을 붙이고 출입을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둘러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을 고정배치하여 익사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조합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함

이 당원의 판례(1982.4.27. 선고 81다266호 판결 참조)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 보의 윗쪽 50센치미터 상거한 하상의 웅덩이이고 수영금지의 경고판이 있고 또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울러쳐져 있다면 그것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시설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의 구역내가 아닌 상류부분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어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266 판결

【손해배상】

[집30(1),민,164;공1982.7.1.(683) 524]

하상에 파여진 웅덩이와 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보 옆의 하상에 생긴 웅덩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를 없애고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니 하상에 생긴 웅덩이는 보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강영희 외 6인

【피고, 상고인】

정읍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읍천에 저수관개시설인 이 사건 보(洑)를 설치 관리하여 오면서 1978.11.20부터 1979.5.20까지 이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보의 윗부분 바닥을 폭 7미터 길이 2미터 가량 굴착하였던 바 이 부근은 수영금지 구역이긴하나 정주읍내와 가깝게 위치하여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어 수영 등 물놀이를 하는 일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는 위 보의 준공시에 굴착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고 위 보에 출입금지 시설을 함으로써 예상되는 익사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 망 강정식(당시 10세 10월 남짓)이 위 보의 주변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고가 소유,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은 굴착한 웅덩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피고 피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보의 점유, 소유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는 정읍천에 관개를 위한 저수와 수량조절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은 위 보 옆의 정읍천 하상에 생긴 웅덩이 속임이 명백한 바, 하천의 하상에 웅덩이가 없도록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일은 위 보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일이며 그와 같이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위 보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서 위 보가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지점은 양변의 호안공사까지 마쳐진 정읍천내이며 수영금지구역으로서 사고 당시에도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곳에까지 들어와 수영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천의 하상을 평탄하게 유지하거나 또는 출입금지의 방책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 보의 하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

[집32(3)민,175;공1984.9.15.(736)1432]

인수로 주변 하상에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순찰하게 한 경우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유무(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용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상고인】

천안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31. 선고 83나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상수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풍세천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곳 우안변에 하천을 횡단, 지하로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수집수정을 신설하고 위 집수정으로 부터 동북쪽 15미터 지점에 위 집수된 물을 퍼올리기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여 천안시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1982. 봄부터 심한 가뭄으로 풍세천이 고갈되어 취수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시는 위 집수정에서 상류쪽 하상을 굴착하여 길이 250미터 폭 5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인수로를 설치하게 된 사실, 위 인수로를 설치한 풍세천 일대는 부근에 민가가 가까이 있어 그곳 어린이들이 인수로 근처에 들어가 놀 경우가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수로 주위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최소한 인수로 주변만이라도 경비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망 유호수(4세)는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혼자 놀다가 위 인수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작물인 위 인수로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풍세천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마다 1회씩 순찰로 돌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 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3일 신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김모(당시 8세·수성구 파동)군 가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의 시설물 관리상 잘못을 인정, 3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시 신천 물놀이 익사 안전 의무 방치”

[매일신문 2005-07-14 12: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보에서 낙하한 물로 하천 바닥이 파인데다 태풍 매미 영향으로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시는 하상 정리공사로 웅덩이를 평탄하게 하거나 주위에 위험표지나 철책을 치는 등 안전상 관리의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9월 중순 친구들과 신천 용두보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의로운 죽음' 뒤집힌 판결

[앵커멘트]

2년전 울산에서는 물에 빠진 하급생을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었다 여자아이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하천관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유족들을 황보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7월 19일 오후 3시 반쯤.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당시 9살 이 모 양이 물에 빠지자 인근에 있던 11살 김 모 양 등 3명이 이 양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자]

먼저 물에 빠진 이 양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지만 이 양을 구하려 들어간 김 양 등 3명은 이곳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고지점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업체와 관할 중구청 그리고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중구청과 공사업체가 각각 6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상렬, 고 김민화양 유족]

"안전표지판 하나도 설치 안하고 위험표지도 아예 없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울산시의 경우 중구청과 행정기관이 겹친다는 이유로 피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뷰:신기순, 고 김다예양 유족]

"판사님과 변호사님이 같은 관공서인데 중구청이 들어가니까 울산시는 빼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울산시가 책임을 면한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는 중요한 근거중 하나가 됐습니다.

태화강 유지관리 책임이 울산시에 있는데 울산시를 빼고 중구청에게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1심과 달리 공사업체가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장문수, 변호사]

"이 판결은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유지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빠진채 중구청에게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려다 세상을 등진 세 아이를 가슴 깊이 묻고 사는 유족들!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도 구해줘선 안된다는 말을 꾸념처럼 되풀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김현경]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002년 7월 경북 울진군 남대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한모(당시 16세)군의 부모가 "사전예방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울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 돋보기] 물놀이 금지 지역서 익사 지자체에 배상 책임 없어

[중앙일보 2005-07-19 05:54]

재판부는 "한군이 출입통제 울타리 외에도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을 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가 경고 내용을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익사 사고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최근 2004년 7월 경북 영주시 제방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권모(당시 14세)군의 부모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험표지판,인명구조장비함이 있었고, 사고 당일 소방서에서 사고 현장을 순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주시는 사고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등에서 물놀이 중 익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측에 대해 국가배상법(5조)에 근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설치,관리상의 잘못을 따지는 기준은 완전무결할 정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지 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관리자에게 재정적,인적 제약 등이 있는 만큼 이용자에게도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검도장 수련회로 계곡에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한 이모(당시 8세)군의 부모가 강원도 홍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에게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놀이 사고 부모책임 크다”

[서울경제 2004-06-06 18:06]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의 책임이 더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검도장 수련회를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이모(당시 8세)군의 부모가 검도장 운영자와검도사범,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40%의 책임을 지고 7,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부모는 수영을 못하는 이군에게 계곡에 가면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군과 원고들의 책임이 60%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피서철을 앞두고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검도장측은 어린 이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군 부모에게서 들었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게 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홍천군 역시 사고지점 인근에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서울지법은 2002년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4명의 부모가 농업 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의 책임을 65%로 정한 판결을 내렸다.

2005/07/15 12:56

판례 속보

해수욕장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 배상 불가” 판결

판결 요지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졌을 경우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 구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던 송모씨는 2~3m의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해수욕장 측이 경고방송을 제대로 내보내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으며 1억 8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수욕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원고인 송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여러 차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보험사는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 ‘물놀이중 사망’ 본인책임 ?

[국민일보 2005-07-18 18:35]

법원이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의무 소홀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물놀이 사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2002년 7월 친구들과 여행하던 중학생 한모(15)군은 경북 울진 남대천에서 수영하다 4m 깊이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와 물놀이를 금지하는 위험표지판이 태풍 루사로 유실됐지만 주변에 널려 있어 주의만 기울이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군 유족은 지자체가 사전 예방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영률)는 18일 “지자체가 위험표지판 경고내용을 무시하며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익사사고까지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대를 갓 제대한 공모씨와 김모씨가 2002년 7월 강원 홍천군이 관리하는 강변에서 직장 동료와 야유회를 갔다 물에 빠져 숨진 사건도 비슷한 경우. 사고 장소에는 ‘수영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 양편에는 ‘위험’이라고 쓰인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안전요원으로는 구명조끼도 걸치지 않은 경찰관만 배치돼 있었다.

춘천지법 민사합의2부는 이같은 점을 인정,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찰관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보호·계도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공씨 등이 위험지역임을 알고도 수영하다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만큼 지자체 책임을 25%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003년 8월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지자체가 하천을 막아 운영하는 유원지에 놀러갔다 딸을 잃은 김모씨 부부가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호자도 없이 7살 남짓한 어린이가 물살이 급한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부모에게 있어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은 “물놀이사고의 경우 부모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는 만큼 항상 자녀들의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위험 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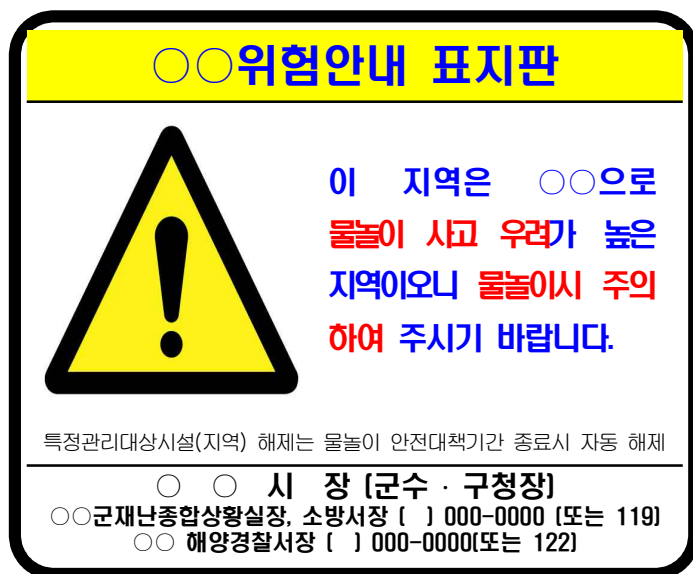


별

첨

【별첨1】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 경고표지판(안)



[참고]
풍랑표지판

- 색상 : 안내판(노랑), 글씨(파랑, 빨강, 검정), 테두리(검정)
 - ※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격
 - 1,500mm×1,000mm이상(철 또는 알루미늄)
 - 그림 : 550mm×550mm이상
 - 기둥형 또는 부착형으로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이상
- 장 소 : 취약구역 등 물놀이 지역, 갯바위 낚시터, 야영장 및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의 눈에 잘 띄는 곳
 - ※ 그림의 종류·문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특히 그림은 본 지침 이외의 그림도 사용가능(별표 그림, 문구 등 참조 가능)



[참고]
풍랑표지판

- 색상 : 안내판(빨강), 글씨(파랑, 빨강, 검정), 테두리(검정)
 - ※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격
 - 1,500mm×1,000mm이상(철 또는 알루미늄)
 - 그림 : 550mm×550mm이상
 - 기동형 또는 부착형으로 설치
- 높이 :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이상
- 장소 :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러켜 물놀이를 금해야 할 지역의 눈에 잘 띄는 곳
 - ※ 그림의 종류·문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특히 그림은 본 지침 이외의 그림도 사용가능(별표 그림, 문구 등 참조 가능)

<별 표>

표지판 예시

| 수영금지 | 다이빙금지 | 수상스키금지 | 깊은수심 주의 | 수심변화주의 |
|--|--|--|---|--|
|  수영 금지 No swimming |  다이빙 금지 No diving |  수상스키 금지 No water skiing |  깊은 수심 주의 Warning : Deep water |  급격한 수심변화 주의 Warning : Sudden drop |
| 높은파도주의 | 얕은수심주의 | 급류주의 | 구명복 착용 | |
|  높은 파도 주의 Warning : High surf |  얕은 수심 주의 Warning : Shallow water |  급류 주의 Warning : Strong current |  구명복 착용 Wear life jacket | |

표지판 문구 활용예시

| | |
|---|--|
|  <p>이곳은 차가운 물이 흘러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영을 금지합니다.</p> <p>수영 금지 No swimming</p> <p>차가운 물 주의 Warning : Cold water (Heart failure)</p> |  <p>이곳은 물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수영을 금지합니다.</p> <p>수영 금지 No swimming</p> <p>물 소용돌이 주의 Warning : Swirling water</p> |
|---|--|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시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깊은 수심 주의
Warning: Deep water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이곳은 수심이 얕으므로 다이빙시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얕은 수심 주의
Warning: Shallow water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이곳은 급격한 수심변화로 위험하므로
물놀이시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급격한 수심변화 주의
Warning : Sudden drop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이곳은 급류가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물놀이시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급 류 주 의
Warning : Strong current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높은 파도 주의
Warning : High surf

이곳은 높은 파도가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물놀이시 특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구명복 착용



" 우리 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 "



구 명 복 착 용
Wear life jacket

○ ○ 시 장(군수·구청장)
○ ○ 소방서장, ○ ○ 해양경찰서장

【별첨2】

위험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위험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이 곳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 빈발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사용금지 및 통제**합니다.

- 소 재 지 :
- 소유자(관리자 등) :
- 지정사유(위험요인) :
- 안전점검책임자 : ○○과 ○○담당(☎○○○-○○○○)

♣ 출입통제 또는 입수 금지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함.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을 훼손하면서 위험구역에 진입해서는 않됨.

위 사항 위반시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전화 : 119, 해상 122

지역재난상황실 : 02-1234-5678

○ ○ 시 장(군수·구청장)
○ ○ 소방서장, ○ ○ 해양경찰서장

※ 규격 및 설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프린트 후 코팅 등을 통해
게시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목 등을 이용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SAFETY LINE」 띠 제작(안)



- 색상 : 바탕색(노랑), 글씨(파랑, 빨강, 검정)
- 규격
 - 폭 : 150mm (물에 뜰 수 있는 재질 사용)

인명구조함 및 위험경고판 설치 사례

- 위험경고판 아래 인명구조함을 함께 설치,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사용 가능



『탐동방파제』



『중문 지삿개』



『닥그네포구』



『인명구조함 순찰장면』



『수난사고 경고판』



『지역의용소방대원 순찰 장면』

【별첨4】

시설물별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물놀이주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토 목 부 분 | ◦옹벽, 담장, 석축 | ◦균열 및 기울어진 상태 ◦기초부분 침하상태 ◦석축의 배불림 및 배면 배수처리 상태 | |
| | ◦사면 | ◦사방블록, 비탈면 잔디 식재 상태 ◦비탈면 중간부 지하수 유출 상태 ◦절취, 성토부 균열 상태 | |
| | ◦배수로 | ◦준설상태 여부 ◦배수로와 보행로의 접점에는 턱, 높이차, 요철 등으로 인한 전도 위험 상태 ◦뚜껑 파손상태 여부 | |

□ 수영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야 외 시 설 부 분 | ◦야외조명 | ◦조도는 적당한지 여부 ◦전기결속점 및 스위치 등의 전기설비 방수상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마감 상태 | |
| | ◦수영장 | ◦풀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등의 고정 상태 여부 ◦낮은 천정 및 계단 등에 충격보호대 설치 상태 여부 ◦안전요원에 의한 상부 감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

□ 해수욕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해 수 욕 장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장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여부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연락처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여부 ◦지역번영회 등과 협조체제 구축 여부 (시범·일반·마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요원 상시 근무체제 유지 여부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여부(시설물, 건축물 배치, 관리운영계획 등) ◦해수욕장 운영 배상책임보험 가입 실태 ◦레저시설과 유영구역 구분관리 여부 ◦유영구역 설정 여부(성인 가슴깊이정도) ◦유영구역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부표 및 경고판 설치 여부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의 경우 만조·간조시간을 감안 유영구역 공지 사항 여부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경찰(해경), 지역번영회 등 유관 기관과 합동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운영 여부 -최상층(옥상) 백사장 조망전망대 설치 여부 ◦감시탑의 설치 여부(100~200m이내 1개소) ◦감시탑의 높이 3m(서해안의 경우 5m) 설치 여부 ◦수상안전장비 확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선 : 이용객 100만 2~3대, 50만 1~2대 -구명보트 : 30만명당 1대, 5만 1~2대 -구명튜브 : 감시탑에 배치 ※ 인명구조선은 산소호흡기, 응급구호요원 등 인력, 장비 구비 | |

□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수 상 레 저 기 구 및 인 명 구조용 장비 등 | ◦사업장 |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 | |
| |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중 1인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소지 ※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수상레저기구 |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여부 | |
| | ◦구명동의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 | |
| |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카퍼래세일·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수 상 레 저 기 구 및 인 명 구조용 장비 등 | ◦구명부환 | ◦탐승정원의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탐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에 갈음하여 드로우백(throw bag)을 갖추 수 있다. | |
| | ◦구명줄 | ◦탐승정원의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 |
| | ◦예비용 노·상앗대 |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 ◦탐승 정원이 4인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 및 상앗대 | |
| | ◦통신장비 |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도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 ◦소화기 | ◦탐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 ◦그 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 | |
| | ◦인명구조요원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 가이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 | |

【 래 프 팅 장 비 】

| 기 구 명 | 장 비 설 명 | 기 구 전 경 |
|-----------------|--|--|
| 래프트 (리버보트) | <p>○리버보트는 타원형 튜브모양으로 2~3인용부터 30인용까지 다양하지만 보통은 8인용이 보편화되어 있다.</p> <p>○길이12~14피트, 폭6피트정도의 크기에 재질은 PVC나 고무로 되어있다.</p> |  |
| 패들 (노) | <p>○장시간 패들링에도 힘겨움이 없도록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p> |  |
| 라이프자켓 (구명조끼) | <p>○물속에서 7~8시간 동안 떠있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p> |  |
| 헬멧 | <p>○계곡의 급류속의 바위 때문에 머리 보호는 필수, 그러기에 헬멧은 라이프 자켓과 함께 꼭 착용해야 하는 장비이다</p> |  |

□ 유도선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배 치·비 치 기 준 | 비 고 |
|------------------|-------------------------------|--|-----|
| 구 명 설 비 | ◦구명동의 - 전 유도선 적용 | ◦승선정원의 120%이상 (성인용 100%, 소아용 20%) | |
| | ◦구명부환 - 승선정원 5인이상 - 동력선 | ◦승선정원의 30% 이상 ◦승선정원의 15%이상 - 승선정원의 25%이상 태울수 있는 구명정,뗏목,구명부기갖춘경우 | |
| | ◦구명줄 - 승선정원 13인 이상인 선박 | ◦10mm × 30m 1개이상 | |
| | ◦소화설비 - 전 유도선적용 |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 상의 소화기 | |
| | ◦통신장비 | ◦2마일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과 전 도선 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세트 확보 | |
| 승 무 원 | ◦선박직원 | ◦5톤미만 또는 승선정원 13인이하 선박 - 1인(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승선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소형선박(총톤수 30톤 미만) - 여객선 · 선 장 : 6급항해사 · 기관장 : 소형선박조종사 - 여객선외 선박 · 선장 및 기관장 겸임 : 소형 선박조종사 ◦일반선박(총톤수 200톤 미만) - 선 장 · 5급항해사(여객선의 경우) · 6급항해사(여객선외 경우) - 기관장 : 6급기관사 | |

| 구 분 | 항 목 | 배 치·비 치 기 준 | 비 고 |
|----------------------------|-------------|---|-----|
| 승 무 원 | ◦인명구조요원 | ◦유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정원 13인 미만은 유선 30척 까지 구조요원 1인이상(비상구조선 1척 확보) -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유선으로서 승객100인까지는 매50인마다 1인이상, 정원100인 이상인 경우 매 100인마다 1인이상 ◦도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 100인까지는 매 50인마다 구조요원 1인이상, 정원 100인이상인 경우 매 100인마다 1인 이상 | |
| 기 타 착 안 사 항 | ◦게 침 물 | ◦승선정원의 표시여부 ◦승객 준수사항의 게시여부 ◦구명동의 착용법 부착여부 | |
| | ◦구명장비의 배치 등 | ◦구명장비의 배치 및 활용가능 여부(배치적정 여부, 비상시 사용가능 여부) ◦구명장비 노후, 파손 등 사용가능 여부 ◦장비의 유효기간 초과여부(소화기의 충전일자 등 확인) | |
| | ◦구명정 | ◦5톤 이상 선박으로 통신장비 갖춘 유·도선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30척이하시 1척이상, 31~50척 이하시 2척이상 - 승선정원 4인이상, 시속 20노트이상, 망원경 1개, 구명동의 4개, 구명부환 2개, 구명줄 1개이상 | |
| | ◦보험관련 | ◦승객보험 가입여부 및 적정성 ◦선원(인명구조요원 포함)보험가입 여부 및 적정성 ◦종사자 보험가입 여부 및 적정성 | |

| 구 분 | 항 목 | 배 치·비 치 기 준 | 비 고 |
|----------------------------|---------------|--|-----|
| 기 타 착 안 사 항 | ◦선 체 |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상태 ◦파손된 부분 방치 여부 ◦갑판상 인화물질등 위험물 적재 여부 ◦운항중 이동물 고정 여부 ◦기타 운항중 안전성 저해요인 방치 여부 | |
| | ◦기 관 | ◦기름걸래등 인화물질 방치 ◦발지 누적 상태 ◦청수온도, 윤활유, 압력 등 경보장치 작동상태 ◦각종 라인 부식등 누설여부 ◦냉각수 온도 및 압력게이지 작동상태 ◦폐기관 단열제 처리상태 ◦시동중 축전지 보관상태 ◦운항중 기관실 점검 상태 ◦엔진고장시 대응장비(뿔) ◦운항중 이상동요 상태 | |
| | ◦소화,방수설비 | ◦소화펌프 작동상태 ◦소화기 비치여부 ◦소화전 및 소화기 관리상태 ◦기관실내 자동확산소화기 비치 여부 | |
| | ◦유도선 안전운항 관련 | ◦정원초과 승선여부 ◦선원 및 승객의 음주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기타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 |
| | ◦유도선장 안전운항 관련 | ◦선박의 계박설비 안전성 여부 ◦부잔교, 난간등 안전성 여부 ◦매표소, 화장실 등 승객편의시설 설치 여부 ◦선원명부 및 요금표 게시여부 ◦방송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유·도선 통신시설 설치 여부 ◦승선신고서 비치 및 작성여부 ◦기타 유도선장 안전관리 상태 | |

【 시설물 분야 】

| 안전장비 | 특 징 | 착 안 사 항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어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프후 사람을 밑으로 내려 주거나, 번지코드를 타워 상부로 복귀시키는 시스템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원치, 질소유압식, 오일 모터식, 리강식, 리프트식 ※국내:전동원치식이 가장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이어의 손상상태 및 기계의 작동 상태, 전기시설 점검 ◦반드시 정전 등 고장시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함 ※ 사고사례 ◦오일모터식 제어시스템이 동결된 상태에서 점프후, 이용객을 공중에 40여분간 매달려 있게 한 사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및 계단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 전문업체의 정기적 점검 여부 확인 ◦반드시 운영요원과 함께 탑승 ◦계단에는 미끄럼방지책 설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워 등 기타 구조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워의 안전성 ◦각 구조물의 볼트, 너트의 풀림 (레드마킹 표시) ◦구조물의 안전진단 여부(2~3년 주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 등 각 건물등에 소화기비치 (상태)여부 | |

□ 산간계곡, 하천·강·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안전관리 및 위험·경계 표시설치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강 등 사고취약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플랭카드 및 안전선 설치 여부 ◦산간계곡 등에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장치 작동 여부 ◦계곡야영지, 하천, 강 등 사고위험 지역에 간이 구명장비 비치 여부 ◦사고위험 지역에 수영, 야영금지 경고 등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계곡야영지, 하천 등 사고빈발 지역 안전계도 및 예찰활동 여부 ◦하천, 강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여부 ◦익사사고 위험지역 인명구조 체계 구축 여부 | |

□ 갯벌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착안사항

| 구 분 | 항 목 | 점 검 기 준 | 비 고 |
|----------------------------|-------|--|-----|
| 안전관리 및 위험·경계 표시설치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체험활동 안내인 채용여부 설치 여부 ◦갯벌 안전수칙 게시판 게시 여부 ◦만조시간 알리는 게시판 게시 여부 ◦안내방송시설 설치 여부 ◦갯벌체험활동 행동지침 교육 실시 여부 ◦갯벌체험장 안내판 설치 여부 ◦갯벌체험활동에 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갯벌체험장 단위면적당(1ha) 수용인원 적용 여부 ◦갯벌체험장 이용기준(이용대상, 이용기간, 시간 등) 수립 여부 | |

물 놀 이 안 전 매 뉴 얼

총 괄 : 예방안전국장 박 낙 조

편집책임 : 인적재난과장 박 상 국

편집실무 : 류 송, 신 영 섭

발 행 처 : 소방방재청 인적재난과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번지(이마빌딩 11층)

T E L : 02) 2100-5275, 2100-5280

F A X : 02) 2100-5279

인 쇠 : 삼 진 기 획 TEL : 02) 720-4743~6
